(Daily) #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8 1981년10월3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October 31, 1981

NOV 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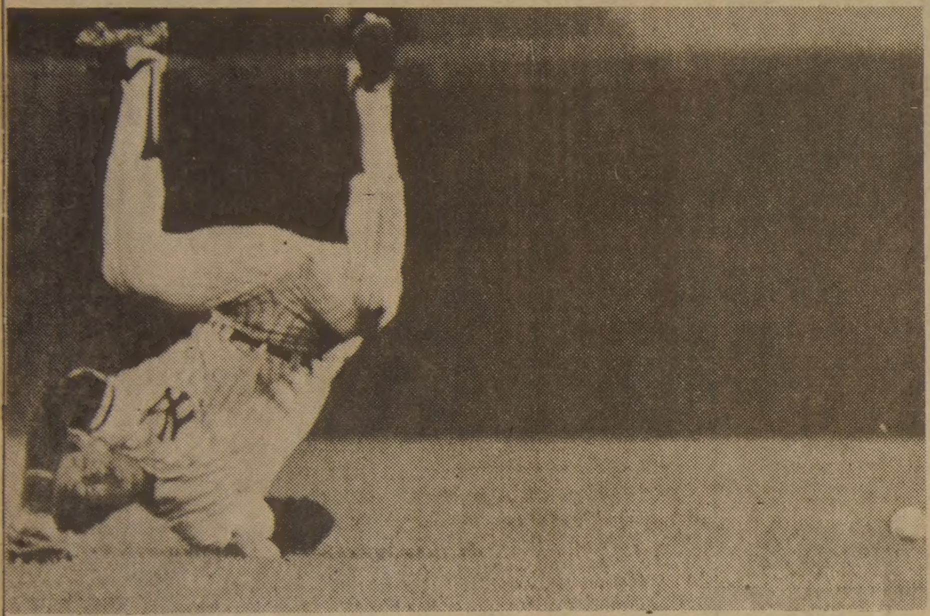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양키스 9 : 2로 물리치고 3년만에 복수

WORLD SERIES 1981

다저스 월드시리즈 제패

양키스의 투수교체가 화근



◇뉴욕 양키스 2루수 윌리·랜돌프가 볼을 잡으려다 멋진폼(?)으로 나 뒹굴었다. 다저스는 이 경기에서 양키스를 9:2로 대파, 월드시리즈 패권을 차지했다.

휘청 휘청대던 다저스가 드디어 허장성세의 양키즈를 9:2로 가볍게 물리치고 81년도 월드시리즈를석권했다.

승패의 갈림길이 되었던 6차전은 월드시리즈답지않게 다저스의 일방적 게임으로 김빠진 경기가 되었다.

LA다저스는 77, 78년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에게 당했던것을 그대로돌려 주었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2패후 심기일전한 LA다저스는 25일까지 3개의 홈게임을 휩쓸고 28일 양키스스타디엄에서 팬들의 야유속에 거행된 6차전에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4승2패로 81년을「다저스의 해」로 장식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통산 5번째의 월드시리즈 패권을 잡았고 1958년 뉴욕·브르크린에서 LA로 이동한이래 4번째의 승리이다. 다저스의 마지막승리는 65년도, 16년 전이었다.

6 차전에서 다저스에게 우승을 안겨준 결정적 수훈선수는 이날의 승리투수 버트·후튼.

후튼은 내셔날리그 서부조 우승결정전에서 휴스톤과의 마지막 경기와, 몬트리얼에게 2패를 안겨주는 등 월드시리즈 진출의 수훈을 세웠었다.

이날 4회까지 1:1의 팽팽한 접전은 5회초 양키스 투수교체의 틈을타 벌어지기 시작했다.

4회말 양키스는 투아웃린 너휘스트, 세컨의 기회를 맞았다. 비록 6안타를 허용했으나 1실점으로 다저스를 잘 막은 베테랑투수 토미·존의 타순 이었으나 양키스의 레몬감독은존대신 핀치히터를 기용,전세를 만회해보려 했다.

양키스 릴리프(구원투수) 조지·후레이저는 5회초 다저스에게 3점을 내줘 이날의 패전투수가 됨과 동시에 1916년 브랙·삭스의클라우드 윌리암 이래 처음인 월드시리즈 3패의 불명예선수가 되었다.

이날 다저스의 타선중수훈선수는 센타필더 페드로·귀레로, 홈런, 3루타, 싱글안타를 포함, 5타점을 올려 공동최우수선수(MVP) 상을 수상했다.

양키스의 패배로 누구보다 실망한 선수는 베테랑 왼손투수 토미·존(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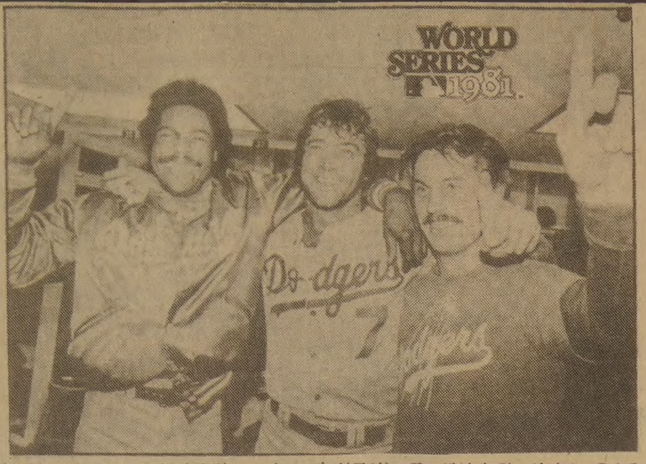
게임후 T·J는"계속 던지기를 원했었다. 월드시리즈에서 11이닝을 던져 겨우 1실점밖에 안했다"고 레몬감독의 교체를 불평했다.

게임후 패전감독 봅·레몬은"4회말 투수타석중핀치히터를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작전미스였다"고 패배를 자인했다.

한편 월드시리즈 우승후 다저스 감독 톰·라소다 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키스와 대결하여 꼭 월드시리즈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두번이나 물리쳤었다"고 통쾌한 설욕의 소감을 말했다.

한편 LA에서 팬들과의 주먹질등으로 말썽많은 양키스 구단주 스타인브레너는 패배후"정식으로 전세계 양키스팬들과 뉴욕시민에게 사과한다"면서 "우리는 곧 82년 월드시리즈를 준비하겠다"고 내년을 기약했다. 이어서 그는 " 다저스의 승리를 축하한다. 특히 친구 라소다감독의 분전을 치하한다"고 그답지않은 차분한 어조로패배의 소감을 피력했다.

다저스는 지금까지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와 10번 싸워 2번밖에 이기지 못하여 이번승리는 다저스에게 특히 값진 것이었다.



◇MVP…페드로·귀레로(왼쪽), 스티브·예거(중앙), 론·세이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후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월드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공동 MVP가 되었다.

월드시리즈 MVP 3명

세이, 귀레로. 예거

월드시리즈사상 처음으로 세선수가 최우수선수(Most Valuable Players) 타이틀의 영광을 차지했다.

영예의 세선수는 다저스의 론·세이, 페드로·귀레로, 스티브·예거.

MVP로 3선수가 이례적으로 뽑힌것은 다저스의 일루수 스티브·가비의 말대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은 어느특정선수의 눈부신 활약보다는 팀·플레이의 승리였음을 시사했다.

3루수 론·세이는 월드시리즈 6게임동안 4번타자로 활약, 타율 350, 타점 6점을 올렸다.

중견수 귀레로는 처음 2게임에서는 8타석 무안타로 저조한 기록을 보였으나 그후 분발, 타율 333, 타점7점을 올렸다. 7개의타점중 5개는 6차전에서 얻은 것으로 1게임에서 얻은 타점으로 월드시리즈 사상 2번째로 높은 점수이다.

일년시즌보다 월드시리즈동안 타석에 많이 들어다고 농담하는 포수 예거는 시리즈 4, 5차전에 승리타점을 올려 다저스가승리하는데 결정적 수훈을세웠다.

오늘 신문 금·토요 합편 14면 발행

종교음악·문학의밤
뱅쿠버한인연합교회

(뱅쿠버)뱅쿠버한인연합교회(목사 반병섭)는 지난 24일밤「가곡의 밤」을 가진데 이어 31일(토)저녁 7시「종교음악과 문학의밤」을 개최한다.

시와 찬미와 맑은 노래들로 엮어질 이 예술잔치에는 동교회소속 신자이며 문협회원인 김영매, 김원장등 시인도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륵집 4회분은 기사가 넘쳐 11월2일자(월요판)에 실립니다.

조오련 도버해협에 도전

대한해협횡단 성공에 이어

(서울29일=연합)작년8월 51km의 대한해협을 13시간동안 횡단에 성공한바있는 한국의 수영스타 조오련씨는 내년 7월영국과 프랑스사이 도버해협에 도전할 계획이다.

31살의 조씨는 대한해협횡단에 성공하자 바로 도버해협횡단을 결심했으나 후원자 부족으로 지연되던중 최근 한국자동차 보험에서 조씨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7, 8, 9회 아시안 게임에서 4개의 금메달등 6개의 메달을 획득한바 있는 조는 해협횡단뿐 아니라 최단시간기록경신에 전력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장 33km 도버해협단 최단시간 기록은 8시간 45분이다.

"치과의사 아저씨, 사탕보다 현금을 요" (관련기사 2면)

社 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 6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심으로 본 김용순 무용연구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및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많은 성장을 모국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국공연을 계획하고 무용단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연습시작 : 11월7일(첫토요일)

1982년도 계획
6 월 : 제3회 무용발표회
7 월 : 한국방문및 공연
12월 : 자선 공연

문의전화 : 751-8891(오후7시이후)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할로윈

◇… 오는 31일은 할로윈. 할로윈이 되면 유령, 마녀, 마귀등의 의상을 차려입은 꼬마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어둠속에서 꼬마악귀들을 맞이한 가정에서는 미리 준비한 캔디등으로얼른 이들을 대접한다. 각 홀리데이 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지만, 할로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준다. 마녀, 마귀, 유령의 게임은 이들을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요술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캔디를 받아가는 어린이들이나, 캔디를 준비하는 어른들이나,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다. 할로윈의 유래, 할로윈에 주의할 점, 집에서 만들수 있는 할로윈의 가면과 음식을 소개한다. …◇

◇제철만난 호박농장—할로윈의 빛깔은 검정과 주황. 검정은 마녀의 옷빛깔, 주황은 펌킨빛깔이다. 펌킨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는 제인·콕스는 3주일전 이호박밭에서 허수아비 의상을 입고 결혼한 새색시. 콕스농장의 호박값은 25센트부터 2달러. 10월 마지막주가 피크다.〈왓슨빌, 캘리포녀—UPI〉

꿈이 있는 어린이들의 名節

수천년전、死神위한 축제서 由來

假面쓴 꼬마들의 行列、집집마다

모양좋은 호박 골라 따끈한 펌킨푸딩 굽고

『Trick or Treat』 나갈땐 반드시 父母同伴

유 래

할로윈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수천년전 현재의 영국및 프랑스등지에 살고있던 켈트족이었다.

이들은 11월1일을 새해첫날인 1월1일로 착각, 10월31일날 뉴·이어스·이브 행사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죽음의 신인 사마인을 위해 축제를 베풀기로 결정, 큰불을 피워놓고 동물을 제물로 올린후, 마귀들을 경계했다.

물론 이같은 축제는 별재미는 없었으나, 당시의 켈트족은 그것밖에 할줄을 몰랐다.

세월이 흘러 로마군이 전세계를 점령하게 되었을때, 켈트족의 영토에도 로마군이 진입케 되었다.

로마인들은 원래, 과일 나무의 신인 포모나를 위한 축제를 매해 가을마다 열고있었는데, 켈트족 영토로의 진입으로 인해 두가지 축제가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이후부터 할로윈에 사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이제 기원전이 아닌 기원후가 되었다.

점차 세력을 갖게된 크리스찬들은 켈트족의 이교도적인 축제가 싫었으나, 그것을 금지시키면 많은 교인들을 잃을것이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생각해낸것이 그들의 유령의상은 그대로 허용하되, 이 축제를 크리스찬·홀리데이로 변화시키자는 것.

이미 그때에도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시켰던 그리스도교는, 따로 성인들을 위해 집합적인 축제를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축제일을 11월1일로, 축제명을 할로우·데이로 정했는데, 이때 「할로우」란 「홀리」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전날을 가르키는 할로윈이란 단어는 ALL HALLOW EVEN이란 말에서 생겨났다.

놀 이

우선 TRICK OR TREAT을 들수있다.

이것은 이날 죽은자의 영혼이 지상에 되돌아와 음식을 요구하는데, 만일 이때 음식을 얻지못하면 보는 사람에게마다 저주를 퍼붓게 된다는 전설에서 생겨난것이다.

할로윈에 호롱불을 들고다니는 잭·오·랜턴 놀이는 아이리쉬인들로 부터 전해진 것.

그들은 잭이라는 망자가 천당에도 지옥에도 들어가지를 못해, 호롱불을 들고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전설을 갖고있었다.

당시 그는 석탄으로 불을 피웠는데, 그 석탄은 악마가 준것이었다고 한다.

할로윈에 등장하는 농산물로는 펌킨, 사과외에 호도(너트)가 있다.

할로윈에는 악령들을 쫓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위한 모다불을 피우는데, 젊은 커플들은 이 모다불과 호도로 앞날을 점치기도 한다.

즉 모다불에 호도를 던져 조용하게 타면 앞으로 평화롭게 살것이며, 불속에서 튀어오르면 평탄치 못할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할로윈이 마귀들의 날로 불려지기도 했다.

마 스 크

너풀거리는 코, 큼직한 눈의 모자겸 마스크는 할로윈나이트를 흥겹게 보낼 수 있는 물건.

만드는 법도 간단하여, 7세 이상이면 어린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우선 26×40인치 크기의 두껍지 않은 브리스톨·페이퍼가 필요하다.

이 브리스톨·페이퍼는 아트·스토어에 가면 1달러이내에 구입할 수 있다.

26×40인치 크기에서는 4개의 모자—마스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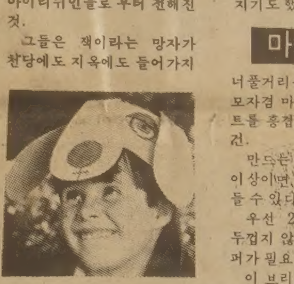
만드는 법은 첫째, 페이퍼위에 기사옆에 보여진 패턴대로 선을 긋는다.

선을 따라 자른후, 코를 접어내리고 또 접을 부분이 있으면 패턴에 일러진대로 따라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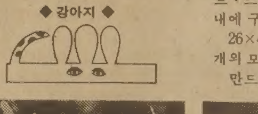
그후 펜으로 눈을 그리고, 코부분에도 갖가지 모양의 코모양을 그려넣는다.

맨나중에 양끝을 접쳐스태이플로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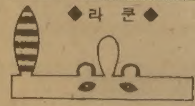
이같은 모자—마스크는 할로윈뿐아니라 생일파티에 이용해도 재미있다.



◆강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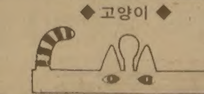


◆라 쿤◆



◆사 슴◆

◆고양이◆



펌킨푸딩

할로윈저녁에는 역시 펌킨(호박)요리를 해먹으면 더욱 제맛이 난다.

여기 소개하는 펌킨·셀·후루티드·라이스·푸딩은 디너파티의 후식으로는물론, 간단한 식사의 메인·디쉬로도 훌륭하다.

우선 5~6파운드의 펌킨을 고른다.

펌킨은 직접 농장에 가서 따는것도 재미가 있는데, 플라야·델·레이지역의 로페즈·랜치(12681 W. 제퍼슨)에서는 할로윈까지, 매일 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 오픈한다.

펌킨을 고를때에는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고, 바다에 평평하게 놓아지며, 크기에 비해 무거운것을 고른다.

우선 펌킨의 윗부분을 4~5인치 직경으로 잘라내고, 속을 모두 긁어낸다.

속빈 펌킨에 1티스푼의 펌킨·파이·스파이스나 그라운드·시나몬을 골고루 뿌린다.

뚜껑을 다시 덮고, 오븐의 브로일러·팬에 담아 랙에 얹어놓는다.

온도를 3백50도로 유지하고, 끓는물을 0.5~0.75 인치 깊이로 팬에 부어놓는다.

▲펌킨속의 푸딩.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난다.

펌킨은 45분정도 베이크하는데, 10~15분쯤 되면 라이스·푸딩을 만들기 시작한다.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3~4쿼트·팬에 2컵반의 물을 끓인후 ITS의 버터와 1컵의 라이스를 넣고 젓는다.

차츰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은후, 라이스가 물러질때까지 20분정도 끓인다.

여기에 1컵의 브라운슈가, 1컵의 잘게 자른자두와 말린 살구, 1티스푼의 갈은 오렌지 껍질, 반컵의 오렌지쥬스, 반티스푼의 그라운드·시나몬을 넣는다.

그리고 조그만 사발에 2개의 계란을 1.75컵의 우유와 섞은후, 함께 집어넣는다.

온도를 중간정도로 올리고 푸딩이 끓을때까지 계속 젓는다.

펌킨이 연해지면 다만들어진 푸딩을 펌킨속에 집어넣고 30분동안 더 베이크한다.

후식으로는 12~15명이 점심으로는 6~8명이 먹을 수 있다.

푸딩은 따뜻하게 먹으면 좋으므로, 다 만든후에는 식지않도록 타올로 덮어놓는다.

안전주의

할로윈밤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나이가 어린 TRICK-OR-TREATER는 꼭 부모가 동반하며, 할로윈의상은 색상이 밝아 쉽게 눈에 띌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두운 것일때는 밝은 테이프를 붙여준다.

또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낯선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한다.

이웃에서 얻은 캔디나 과자들은 집에 돌아올때까지 먹지말도록 주의한다.

가끔 정신이상자들이 그속에 해로운 것을 넣을염려가 있으므로, 집안의 어른이 일단 살펴본후에 먹도록 해야 한다.

한편 캔디보다 페니, 연필, 풍선, 스티커, 슈가리스·검, 프레첼, 페이진, 재미있는 모양의 지우개등을 어린이 마귀들에게 주면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선물이 될것이다.

社說

취업이민의 명암

— 위니펙봉제협회의 경우

작년가을부터 캐나다 한인사회에 약 100명의 취업이민 실현으로 고무적 회소식을 가져왔으며, 올해에도 제2차로 100여명 집단이민이 실천에 옮겨져, 그중 이미 약 80명이 도착, 연말 안으로 35명의 후속진이 또 오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년내에 2천명이 더 초청되어 올 것으로 범교민적 기대를 부풀게 해주던 위니펙 한국여성 재봉사들의 집단이민 전선에 때아닌 이상기류가 엄습하여 초청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의 발달은 작년의 제1진중 상당수의 여재봉사가 약속한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직장을 이탈해 타지역으로 가버린데서 시작되어, 위니펙봉재협회는 수천명의 한국여성 고용초청계획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모국 출발전, 여재봉사들은 초청자인 위니펙봉제협회와 취업 체결 당시 취소한 1년간을 지정된 공장에서 근무해 주기로 약속하고 캐나다행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온 제1진 한국여성중 10% 가량이 딴데로 무단이탈함으로써 초청자의 당초의도를 좌절(?)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고용회사와 동협회는 "이탈한 한국여성들은 캐나다 이민목적을 달성키 위해 취업약속을 방편으로 악용했다"고 위장취업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장차 연차 적으로 기천명의 한국여성을 계속 취업초청하려던 구상을 재고려, 현지에 봉직하고 있는 수천명의 필리핀및 홍콩출신 취업여공들의 이탈 없는 착실한 근무실태를 예를 들어, 이탈해간 한국여성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이탈 한국여공들의 처사는 실로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넓다란 연못물을 호려뜨리는 몇마리 미꾸라지 속담의 재현이라 하겠다.

캐나다의 법에 따라 재봉사들은 초청측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니, 취업기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나, 1년간의 근무약속을 안했더라면 그들의 캐나다행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국제간 신의를 지킴이 제 나라를 위하는 길도 되는 일임을 모르는 바 아닐 터인데, 고작 1년을 참지 못하고 제 좋은데로 훌쩍 가버림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동료여공들에게 불편한 입장을 빚어주었고, 자기탓으로 장차 고용되어올 후진들의 이민길을 막아버리는 후유증을 빚었으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고용자측의 잘못도 없지 않았다. 약속된 기술자 대우(봉급)를 해주지 않고, 견습공 대우(박봉)로 혹사하는 것은 약속위반임에 틀림이 없으니 이탈여공측의 입장도 일방적으로 지탄만 받을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동료들도 참아내고 있으니 그들 또한 몇달만 더 견디면 자기로서 떳떳하고, 장차 뒤를 이어 취업이민을 후배여성들을 위해서도 자랑다운 선발대, 본받을만한 선배가 되었을 터인데, 칫수 모자란 경거망동으로 훌쩍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버림으로써 후진의 진출길을 막아버리고 만다면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 얼마나 죄스러운 처사인가!

요행히 김원겸 위니펙한인회장등의 교섭이 주효하여 봉제협회는 태도를 완화하여 금년도 예정된 잔여 35명은 보류조처를 풀고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한다. 그러나 내년도부터의 집단취업 초청문제는 낙관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왕 이탈자들은 과거지사라 어찌 수습할 길이 없으나, 충실히 현직을 유지하여 약속기간을 지키고 있는 90%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이탈자가 없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굳게 지키며 더욱 열성껏 근무함으로써 소수 동료들이 남긴 흉터를 씻고, 근면하고 성실한 한국여성의 이미지를 남겨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비록 여공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꿀릴 것 없는 어엿한 직업인이요, 민족의 대표로 타민족들 앞에 나선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지녀달라는 것이다.

단체적 취업이민의 의의는 한국측 입장에서 보면, 풍부한 잉여 인력자원의 수출은 국력의 해외진출로 물적·정신적 보탬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산업 무대에서 어깨도 넓어지는 셈이 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위니펙 교포여성의 집단 취업이민은 고무적 쾌사였으며, 캐나다측에서는 유능하고 부지런한 한국여성 기술자들의 다수영입(迎入)으로 산업능률 향상에 힘입는바 클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이땅의 한인사회도 교포인구 증가는 그만큼 힘과 마음 든든함이 느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들 재봉사 개개인으로서도 선진국의 넓은 무대 진출로 시야도 넓어지고, 외화획득도 되며, 개인생활의 의욕찬 "내일"설계에도 고무적 전환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땅에의 집단 취업이민의 길은 넓게 열려져야 할 것이다.

선교교회 모금음악회

지휘 유희자 테너 유인등

토론토한인선교교회 (목사 안상열)는 오는 11월7일 동교회에서 성전건축기금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갖는다.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유인, 소프라노 장숙씨의 독창, 올게니스트 유희자 박사가 지휘, 반주를 맡은 동교회 성가대의 합창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음악회는 [illegible]가, 민요등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될 것이며, 교인아닌 일반 교민들의 참관도 바란다고 동교회 홍보담당 이승환씨는 전했다.

입장료는 1인당 10달러이다.

舊正 공휴일로안해 김총무처장관 발언

(서울27일=연합)한국정부는 수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음력설의 법정공휴일 문제에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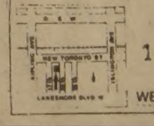
김용휴 총무부장관은 국회내무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가운데 정부는 음력설을 법정공휴일로 하는데반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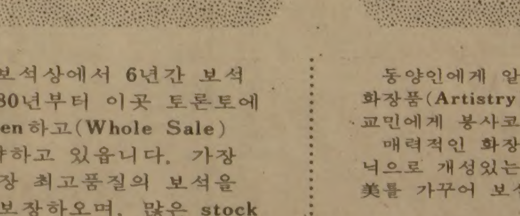
그러나 김장관은 신문사설, 여론조사등을 근거로하여 음력설의 공휴일제정이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1895년에 태양력제도가 채택된 이래 우리의 교육과 생활양식이그 제도에 맞춰 유지되어왔다"고 설명하며, 어떠한 변경도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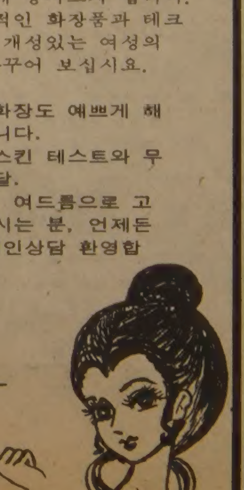
그는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는것은 조상숭배나 전통의 보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X-MAS SHOWROOM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TEL. 461—3555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위해 우리는 가장 많은 장난감, 선물, 크리스마스카드, 장식용, 아동용 모델등 많은 물건을 준비했읍니다.
CASH & CARRY 또는
1월1일에 지불 할 수 있게 크레딧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진열룸
매주: 일요일 오전9시~12시
목요일 오후6시~오후9시
12월까지
전화연락 또는 약속 : 461—3555

YOUNG'S JEWELLERY
여성의 미(美)
한국의 코스모스 보석상에서 6년간 보석상을 경영하다 지난80년부터 이곳 토론토에 보석 비즈네스를 Open하고(Whole Sale) 보석전문가로써 활약하고 있읍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최고품질의 보석을 구입 할 수 있음을 보장하오며, 많은 stock도 구비하고있으니, 구경 하십시요.
* HOME PARTY 전화주문 환영.
→저희보석 공장에서는…
보석주문
보석수리 일체
보석감정
보석 뉴 디자인
오래된 보석을 새 보석으로 개조해 드립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성에게 가장 기쁘고 값진 선물인 다이야몬드, 금팔찌, 금목걸이, 화장품으로 해 보세요.
동양인에게 알맞는 고급 화장품(Artistry)으로 교민에게 봉사코자 합니다.
매력적인 화장품과 테크닉으로 개성있는 여성의 美를 가꾸어 보십시요.
*신부화장도 예쁘게 해 드립니다.
*무료스킨 테스트와 무료배달.
*기미, 여드름으로 고심하시는 분, 언제든지 개인상담 환영합니다.

주 소 : 790 MILITARY TRAIL, UNIT #9 SCAR. ONT.
전 화 : B) 284—9325, R) 281—1954
MRS. 남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이 형 인
부회장:임 철 원
〃 :김 명 정
이사장:김 태 진
부이사장:전 윤 식

협회임원들과 환담

중소기업방문단 대표들

지난10월23일(금)저녁5시 한국관 별실에서 한국 중소기업 중앙회방문단 대표들과 협회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저녁을 나누면서 조촐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캐나다 연방정부후원아래 오타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국제 심포지움대회에 참가했던 27명의 한국대표단 이 토론토에 온 기회에 단장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신 유기정 전 국회의원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백영훈 박사 그리고 한국 도자기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성기조 사장등 세분과 협회의 이형인회장, 김태진이사장, 전윤식 부이사장, 최복기 총무등이 참석하여협동조합 육성방안에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이 환담을 통하여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이 일행이 이미 서울의 정부당국에서 토론토의 1000여개교민 리테일 스토어들이 단결하여 실협을 구성하고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있음을 파악하고있음을 알려준 일이었다. 이 분들중유기정 회장 은 매월 4대경제 단체장의 일원으로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경제실정을 알리는분으로서 이곳 교포들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려고진지하게 물어주었고, 동시에 협동조합 운동은 그 지도자가 희생적 봉사정신에투철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하면서 최대의 관심과지원을 약속했으며, 단장의보좌관으로 일행이 되신 백영훈 박사는 한국의 제1차 경제계발계획의 기획자로서의 면모와 2대의 유정회 국회의원으로서의 관록대로 달변을 구사했으며, 현재도 산업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200여명 직원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대한 연구조사 기획을 담당하는 실무진의 총 책임자로서 교포육성발전의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시킬 것이라는 보장을 듣고 참석자들은 매우 감명을 받은 바 있었다.

이날의 모임은 협회의요청을 조성호 무역관장이주선 하였으며, 측면에서 한인 신용조합의 이홍렬 전무께서 큰 지원을 해 주신 결과였다고 관계자들은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 환담의 시간을 통하여 협동조합추진작업에 한층 밝은 전망과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참석자들은대단히 흐뭇해 하고있다.

우유가격 또 인상

1리터당 2센트씩

10월21일자 토론토·선지에의하면 오는 11월 초부터 최소한 1리터에 2 센트씩 밀크값이 또 오르게 될것이라고 온타리오 밀크·마케팅 위원회의 발표를실리고 있다.

이 위원회의 지배인 로네·휴드씨는 기자들에게어쩌면 매 리터당 5센트씩인상하게될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고 한다. "나는 우유생산자들이 리터에 3센트씩 인상한다는데에 매우 놀랐다.그 뜻은 그 이상 더 인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우유 생산자들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가격을 인상치 않을수 없다는 것이었다.

<회원문예작품> 입선1등

골핑위도우

원옥재

"여보! 빨리 나오지 뭘하고 있어?"

어느날과 다름없이 활기찬경석의 목소리는 현아의 비위를 건드렸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만 하면 되지 뭘 그리 자주해"

현아의 기분을 잘 알면서도 습관적인 능청을 부리면서 잘도 떠들어댄다.

"빨리 나오라구. 약속시간에 늦겠어 응!

"…"

(별꼴이야. 무슨 좋은 직업이라도 잡은것처럼 설친단말야.총각이라면 모르지만 몇식구를 거느린 가장이면서.)

마음에 없는 다정함을 나타낼 수도 있었으련만, 요즈음의 현아는 앞 뒤를 가리지 못하는 혼란과 마음의 균형을 잃게하는 피곤에 지쳐 있었다.

여인을 유혹한다는 봄을 기다릴 때만해도 마음이 부풀었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던 겨울을 지내고 피곤의 빛이 흐르는 윤기없는 얼굴에 따사한 봄볕이 와 닿을 때의 포근함과 겨우내 동안 다시는 살아날것 같지 않었던 나무가지 틈에서 새 생명의 빛이 비쳐 나올때의 신비함이 움추리고 살아야했던 지난 겨울동안의 누적된 피로와 삭막함을 잊어버리게 해주리라 생각했고, 꽃샘바람의 심술에도 아랑곳없이 얇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걸치고, 밝은 색깔의 구두와 백을 챙겨들고, 경쾌하고 산뜻한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마음껏 취하고픈 여인의 소박한 꿈도 가져보았다.

그런데 봄은 현아에게 불만과 갈등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다. 계절감각에 무딧던 경석이가 현아보다 먼저 봄을 즐기기 시작했다.

출근이나 하듯이 자주 골프장으로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리창너머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을 벗삼아 싱글벙글 해가며 골프갈 궁리를 하는것이 일과가 된 것이다.

둘이서 함께 일해야하는 가게 일은 한사람이 시간 남용을 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고달프게 되니, 현아 역시 짜증이 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소견으론 골프는 하나의 여가를 이용한 건전한 스포츠라는 정도로 알뿐인데, 나날이 골프에 집념하는 경석이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가정을 사랑하고,행복의 필수조건인양 알던 그가 집안일에 등한해지고, 심각하게 담배를 빠금히 빨아대다가는 불쑥 일어나서 스윙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다. 현아는 철저하게 남편의 포용아래 온가족이 질서있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여자의 본능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었고, 사시사철 가정과 가게에 속박되어 온 경석은 그나름의 자유로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아내와 남편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한계점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 둘 사이엔 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맞 붙어서 싸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그들은 유난히 조용했다. 조석간으로 남이나 된것처럼 서로 말도 안하고, 남 보듯 하거나, 아예 아이들 방으로 잠자리도 따로하고,

어쩌다가 꼭 대화가 필요할 땐 바위를 대하듯 사무적으로 말을 내 뱉으며 잘도 살아가고 있었다. 때때로 불편 한거야 말이 아니지만, 경석이는 빼 돌아서서 찬 바람을 날리는 현아 얼굴을쳐다 볼 때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그렇다고 마누라 비위를 맞추자니 그런 알량한 재주마저 없었다.

현아는 그녀 나름대로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에게 사과나 위로를 해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남자의 오기와 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얄미웠고, 현아가 돌봐 주질 않자 집 잃은 새처럼 허둥대는 꼴이 불만해서 절대로 저 줄수 없다고 마음을 다구쳐 먹곤했었다.

그런데로 마음을 상하는 쪽은 언제나 현아이고 상대방에 무관심한 경석이의 태평함에 속을 폭폭 더 썩히게 된 것이다.

벌써 두 달이 넘도록 남남처럼 살면서도 이상한 것은 10시만되면 영낙없이 경석이는 현아에게 어서 나오라고 재근하는 전화를 걸어왔고, 현아는 부아가 터지면서도 제 시간에 가게로 꼬박 나가곤 했다.

가게로 들어서는 현아는 되도록이면 눈이 경석이와 맞부딪치지 않게 쌀쌀맞게, 거만하게 내리 뜨고서 카운터로 걸어가다 반갑게 "하이"하고 인사하는 손님과 보란듯이 아양을 떤다. 현아의 속 뒤는 짓을 모를리 없는 경석은 "빨리올께" 하더니 멋 적은 얼굴로 대답없는 빈소리를 남겨두고, 별볼일 없이 시간을 빼길 소냐는등 휑나가더니 빠른 시동을 걸고 성급히 골프장으로 떠나갔다. 손님이 심심찮게 오고 가건만, 현아의 심기는 점점 불이 올라 경석이가 계산기 옆에 부쳐 둔 주문 품목이 눈에 띌때마다 새롭게 미움이 화솟구쳤다. 골프 때문에 서로가 편치 못함을 알면서도 파열치하게 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경석이가 밉기도 했지만, 그걸 못 본척하고 이해해 줄 수 없는속좁은 자신도 답답했고, 기왕 냉전을 할 바에야 아예 가게에 나오질 말아 골탕을 먹이면 되는 것을 딱 거절도 못하는 나약한 자신의 꼴이 더 못 견디게 싫은 것이다.

불만이 불만을 더해서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남편에 대한 실망은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고, 그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곳까지 비약을 하곤했다. 끝내 이혼을 생각해내고, 가련한 아이들 생각과 외로울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며 챔프의 주인공이나 된듯 눈물이 쑥 빠지기도 했다. 흔히 소설에만 있는 것으로 알아 오던 과장된 불행이 자씩의 일로 받아졌을 때의 당혹감이 현아를 의외로 약하게 만들었고, 이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자상스럽게 현아의 피곤을 염려해주고, 아이들의 활용할 시간 마저 신경을 써주고,혼자 나갔다은 미안함을 표시했었는데, 나날이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며 열중하기 시작하자 식구들에게 무관심하게 되었고, 자연히 현아는 똑 같은 불만을 자주 표시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경석이가 생각할 땐 쓸데없는 아내의 바가지로만 일축하기 쉬운 태도였다.

모처럼 가진 취미생활을 격려해주진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줬어야 했건만, 그럴 수 없는 것은 현아 자신의 억제된 정서 때문임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때가슴 뭉클한 우울이 왔다.가볍게 가정을 헤어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며, 자신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해야함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현아가 살아 온 그 생활의 단조로움이 항시 퇴보적이고 불안정한 감정을 이룬 불출구 였음을 뒤 늦게 알게 된 것이다.

별다른 취미라곤 없던 경석에게 골프를 배우라고 권한것도 현아였었다.보아하니 친구들은 물론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골프를 시작했고, 신문 광고난에 허다한 것이 골프대회 공고요, 모처럼 찾아 간 친구들 집에 늘어나는 것은 골프대회 트로피들이고,만나서 나누는 대화들이 주로 골프얘기가 되고 보니, 관심이 저절로 생긴데다, 번번이 제 남편이 골프를 얼마 친다고하며 현아가 알지도 못하는 골프용어를 유식하게 써가며, 카나다에선 경제적으로 할 수 있어좋고, 심신에 좋고,여가선용에 좋고 해가며 골프찬양론에 열을 올리는 친구의 말도 그럴듯 했다.그러지 않아도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해서 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해야겠다고 가끔 생각하던 중 잘 되었다 싶어 넌지시 경석에게 여러번 얘길 했었다.

"오늘은 왜 웃지를 않죠, 이상한데요."

농담 잘하는 손님이 말을 건넨다.

"아 글세! 피터가 매일 골프만 가잖아요. 골프에 미친것 같아요."

싱글 벙글 웃는 그의 큰 입이 요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좋은 운동이죠. 한번쳐보자 그래요."

"내가 시간이 있어요? 가게나 보아야지요. 피터는 정도가 지나쳐요. 아내와 아이들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웃었군요.우리는 당신같은 사람들을 골핑 위도우(Golfing Widow)라 부르지요. 그러나 누구나 한번 시작하면 그럴 때가 있답니다. 담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야 하잖겠어요?"

(불 난 집에 부채질한다더니 당신은 왜 나서서 야단이죠. 누가 좋은 것을모르나요.)

자기 골프실력을 자랑삼아 신나게 떠들고 나간 그 손님의 말이 뒤늦게 현아의 머리 속에 맴돈다.

(골핑 위도우라. 내가? 과연 남편을 골프에 뺏긴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었다. 현아의 매서운 침묵에도 관심없이 사실 요즈음의 경석은 꽤나 부지런 했다. 반아주지 않는 친절도 미소도 멋적게 할 때가 많았고, 물건 주문을 하고, 배달을 점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상을 다녀와야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콧노래를 흥얼대며 서둘며 살고 있었다.

골프를 치러 간다해도 번번히 친 공이 삐뚜막하게만 나가고, 물 속이나 풀 속에 빠트려 공이나 잃어버리기 일수고, 뒤에 쫓아 오는 잘 치는 사람들 눈치 보아가며 빨리 치려니 속이 급해왔고, 자주치게 된 것이다. 한탕 치고 나서도 샤워나하고 푹 잠이나 잤으면 좋으련만 밤 늦도록 가게를 보아야 하니 몸이 고달프긴 현아와 다를바 없었다. 단지 마음이 개운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골프의 저력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다.

현아의 상념이 계속 들어서는 손님들로 인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

골프의 매력은 끝이보이지 않는 푸른 융단위에서 기계체조하듯 멋진 스윙으로 쳐댄 공이 눈에 보일락 말락한 곳으로 날아갔을때의 희열과 온 정신을 집중하여 스윙하는 골프채와공이 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홀 안으로 쏙 들어가는 마법의 구슬같은 공의 마력에 있는것 같았고, 진열대의 물건모양 가게의 한 구석에 꼭 있어야하는 자신을 해방시킨 자유로움이그 맛을 더 해주는것이 아닌가 하고 현아는 막연하게 생각해 보았다. 결국 시간을두고 이해해 보아야 겠다는 안이함에 빠져들면서 냉정해질수 있었다. 제발 경석이가 일상생활의 규범을 깨뜨리지만 말고, 취미생활로 인하여 아이와 아내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비록 건전한 오락이라할지라도 정도가 지나치면바람직하지 못한데, 가정을 지키기위해 모든것을 쉽게 포기하면서도 그것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소박한 아내의 꿈을 깨뜨려주지 말기를 바라며, 온가족이 함께 건강한 즐거움을 나누며 살고 싶었다. 세련된 골퍼라면 가정과취미를 균형을 이루며 살아 갈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놈의 골프친 뒤로 마누라에게 매일 진다네, 어떻게 하나, 져 주지 않으면 매일 갈수가 없으니꿀먹은 벙어리가 돼 주는거지 허허허…

익살좋게 웃어대던 친구분을 떠 올리며 현아는피식 웃었다. 하루종일 습관적으로 내가보던 가게 유리창 밖으로 빨간차가 보인다. 경석이가 헐레벌떡 들어온이. 다

"늦어서 미안해"

"………….."

아침같아선 소리라도 지르고팠던 감정이 차분해진 지금이지만 선뜻 내키지않아 화난 얼굴을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당신입 돼지처럼 나왔는데, 이렇게"하며 떡 벌어진 어깨를 버티고서서두툼한 입술을 내밀고 서 있지 않는가. 참으로 오랫만에 익살을 꾸민 경석이의 뛰어난 재치에 현아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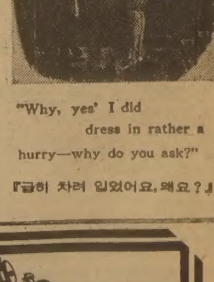
큰 소리가 나도록 시원하게 웃었다.

"염치없으니까 내참 호호……"

여성의 적은 자기자신속에 있다던 한 신문기사가 문득 떠 올랐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533-2361

해외걸작만화



"Why, yes' I did dress in rather a hurry—why do you ask?"

『급히 차려 입었어요.왜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GIFT취급
●생화, 조화, PLANTS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534-1085 김 춘 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6-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535-7772

SOME JEWELLERY 소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225-4641

니폰·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문의처
본 사 광고국 : 533-2361

"X-MAS를 위한"
장난감, 선물용 GIFT 대세일
X-Mas카드, Paper등
●한번와서 보십시요(일요일도 OPEN).
●매주 특별세일을 합니다.
●100달러이상 주문시, 배달합니다.
※이 광고를 잘라갖고 오시면 5%를 다시 할인해 드립니다.
스토아 시간: 월~금-오전10:00~오후6:00
토 -CLOSE
일 -오전10:00~오후3: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MR. ASH에게(366-0026)
410 SPADINA AVE.(칼리쥐×스파다이나)
GANESH IMPORTS CO.,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스 샵에서 일하실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스카트,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토요학교 밴 운전하실분 구함 : 토론토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분, PAY : $30(약4시간 소요)
☎ : 960-0074 씨알한국인학교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우대함
☎ : 923-4354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FULLTIME캐쉬어구함 :
경험있는 분에 한함, 학생도 가능
☎ : 625-1620, 미시사가 지역임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풀타임 남자 가게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4-6311(B), 284-8862(R)(오후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헬퍼구함 :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4시~8시반까지
☎ : 368-8147, 39 BELSHAW PLACE.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구함 : FRUIT MARKET
744 DUNDAS W. Dundas×Bathurst)
☎ : 368-8077, 491-3623(밤9시이후) MS. LEE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출퇴근 하시면서 4개월된 애기 보아주실 분
스카보로지역(미드랜드×핀치)
☎ : 299-1103(오후5시 이후 전화요함)

허드레일 하실분 구함
오리엔탈 파레스
☎ : 533-3545

매매및 양도

74년형 BUIKE : 뉴페인팅, 보증서있음
A-1 CONDITION.
☎ : 759-3923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코메스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77년형 폰티악 밴트럭 :
5만 마일, 3천5백달러, 6기통
☎ : 248-5472

아파트먼트 싸이즈 맞는 피아노 팝니다 :
$1,500
☎ : 783-6871(낮), 636-1430(저녁)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짧은 그로서리 가게, 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땅콩들,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주매상 : $3,500.
쉽게 번창할수 있는 것임, 대강 1,600sq. feet.
주인은 딴 사업관계로 팔음.
ASKING : $12,500+스탁
☎ : 425-1255

도나스 샵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55 KENSINGTON AVE.Tor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드라이크리닝 가게세일
세일 $145,000 FOR YEAR,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50,000, 오렌지빌 내에 있음(미시사가에서
30분거리), 38년간 운영된 이익좋은 비즈네스임
몬트리올·트러스트 CO. DAVE LAL(데이브·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비즈네스를 갖고있으니 문의바람.
☎ : 275-5555, 276-3229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
가격 : $6,900+스탁
☎ : 657-1424 MR. CHRIS(크리스)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그로서리 스토아와 아파트매매 : 그린우드 레이스 트랙
에 있음. GOLDYEAR REALTY의 JOHN CHING
에게 연락바람 ☎ : 960-4610, 977-6347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A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3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연간 세일 : 백만달러
리자이나 지역에 있음.
토론토연락처 : 624-1289 미스타 정

TUCK SHOP을 꼭 원하시는분은
☎ : 749-1316 으로 연락바람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한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합)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상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녀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電話·郵便料 내년引上

常委 질문·답변 올追更예산 審議착수

국회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금년도 追加更正예산안 심의에착수하는 한편 法司·外務·國防·商工등 4개常委를 제외한 9개常委를 續開, 소관부처별로정책질의를 벌였다.

豫決委 금년도 追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申秉鉉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금년도 도매물가는 지난9월말까지 前年末에 비해 12.7%가 상승하여 年末까지 20%대의 안정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금년도 경제성장률을 국내경기가 上向局面에 있고 秋穀作況도 순조로와 6~7%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에서 追更예산은『불가피한 所要』라고 말하고『그러나 國債발행으로 통화증가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申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대한 답변을 통해『1천3백억원의 國債발행대신 韓銀차입금으로 대체할 경우 통화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國債로 民間에 소화시킬생각』이라고 밝히고『그러나 그것도 민간의 자금압박을 가져오기때문에 國債소화에 신중을기하겠다』고 말했다.

保社委 權重東노동부장관은 産災로인한 근로자의 보상혜택을 늘리기위해 産災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會期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은▲1등급에서 7등급까지 産災度가 큰 장해자에게 보상금을 年金과 일시불중 자유의사에 의해 받도록 하고▲보험급여액도 12% 올리고▲産災치료의 현행기준 8일을 4일로 축소하며▲遂行性 起因性으로 되어있는 産災보상기준을 一元化시키며▲鑛山의 경우 塵肺 珪肺환자의 기준을 많이늘려 보상의폭을 확대하는 것등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權장관은 또 産業安全法도 새로 제정, 이번 會期중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히고 이들制定 改正법률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육박시키려는 의지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의 賃金은 앞으로 下厚上薄을 원칙으로하여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다하고 학력별 임금격차의 副作用을 줄이기위해「임금의職務給」제도의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權장관은 또 최저임금제는 계속 검토중이나 현재로는 적용기준을 擇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저임금근로자를 優待한다는 방침아래 勞使公3자가 협의해 임금을 심의하는 「임금심의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交通委 崔侊洙체신부장관은『내년도에우편사업赤字와 전기통신공사 赤字해소를 위해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각각 인상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인상시기와 폭은 내년도정부의 公共요금 인상방향과 시기에 맞추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금년도 우편사업의 赤字額은 3백51억원, 82년도는 3백99억원으로 推定된다』고전제,『赤字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편요금을 현실화, 이중 60~70억원을 보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전화요금의인상조정과함께 公社債 2천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는『각종 鑄貨를 사용, 시외전화까지 할수있는 공중전화를 개발했다』고 말하고『내년까지는 일부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崔장관은 또『우편물의 신속한 송달을위해 종합우편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등 현행 우편물송달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동消印機와 우편물 자동포장기의 보급등 우편물의 기계화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財務委 李承潤재무장관은『외국인에게금명간 투자수익증권의 매입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수익증권의 발행규모는 2개 투자신탁회사가 각각 1천5백만달러씩 모두 3천만달러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農水産委 高建농수산부장관은 작년의 흉작으로인한 農家가계의 어려움을 감안, 금년도 추곡수매를 가급적 外上아닌 현금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糧特赤字는 앞으로 放出米가격을 現實化하여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慢性的인 비료計定赤字를 줄이기위해 비료값의 50% 인상을 금년에 고려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그러나 12월중 비료값引上幅을 결정하겠으며 또 지금까지 農協價와 市中價등 2중가격을 형성했던 농기구판매는 앞으로 메이커가 직접 市場에서 판매토록 하겠다』고말했다.

文公委 李奎浩문교장관은 27일 국회文公委에서 대학의 自律性과 경찰권에대한 金吉俊의원(議政)의 질문에 대해『이번학기부터 대학총장의 요청이 없는한 어떠한사태가 있더라도 대학내에 경찰병력이 들어갈수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建設委 金周南건설부장관은『금년들어 綠地帶(그린벨트)를 한건도해제한적이없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는 해제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앞으로 5차5개년계획기간동안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지어질 1천8백여개의 국민학교와중학교등은 녹지대나 풍치지구내의 건축도 허용하고 학교건설이 도시계획법에 일부 저촉되더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면 이를 인정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운영위 李範錫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은 27일『앞으로 民族통일중앙협의회를 정예화하고 중앙중심으로 만들어 지방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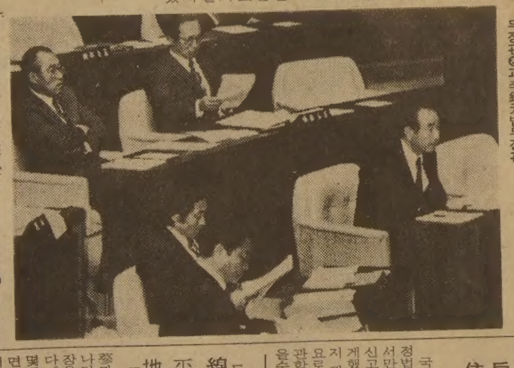
그는『民統은 종래의 통일 운동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생긴 순수 민간단체로 平統과는 성격을 달리하나 기능상 유사한점이 있다』고 말하고『民統의 각종 지방행사에 平統이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賃金 職務給제도도입

産災보상法개정 給與額 12%올려

年內에 肥料값 引上幅결정

投資증권의買入 外國人에도許容 秋穀 전량 現金수매



◇27일 처음열린 豫決委에서 정책질의에 귀를 기울이고있는 申秉鉉부총리(右)와 李鍾元법무장관(左). 뒷줄은 盧信永외무장관.

95년까지 住宅5백만戶건설 50개市1億3千萬坪 宅地化

金周南 건설장관은 27일오는 95년까지 5백만戶주택건설에 필요한 宅地2억9천만평의 확보를 위해▲50개市 지역의 총면적 5억8천5백만평중 旣개발지를 제외한 未개발지 1억3천4백만평을 개발하여 宅地化하고▲旣存市街地를 재개발하여 宅地의 立體的고도화 이용을 도모하며▲不足分은 자연綠地를 宅地개발지로 轉用하거나 도시주변지역을 개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5차5개년계획기간중 國校와 中高校 1천8백19개校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綠地、風致지구내에도 학교건물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에 일부 저촉되더라도 경미할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戶主相續 신고 住所地서 가능 國務會議 의결

국무회의는 27일 戶籍法개정법률안을 의결, 본적지에서만 하도록돼있는 戶主相續 신고를 주소지에서도 할수있게했다. 또 개정법안은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의 확인을필요로하는 協議이혼도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을수 있게 했다.

"所得稅控除 月17만원으로"

民韓、6개稅法代案 稅率도 4~60%로 下向

民韓黨은 27일 所得稅의 人的控除額을 현행 月11만원(5인가족기준)에서 17만원線으로 대폭 인상하고 稅率을 4~60%로 下向조정(현행6~62%)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 法人稅法, 相續稅法, 특별소비세법, 附加價値稅法, 租稅減免규제법등 6개 稅法개정안과 교육세법 폐기안을 마련, 발표했다.

民韓黨 稅法개정심의 특위(위원장 金永龜의원)가 마련한 6개稅法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稅法개정안과 절충키로했다.

民韓黨은개정안의제안이유에서『정부의 稅制개편안은 국민의 擔稅능력을 무시하고 경제성장 일변도에 따른 재정수요증대의 충족에만 치우친 增稅위주』라고 지적하고『民韓黨은 국민의 稅부담을 輕減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讓渡소득세의 控除額을 현행9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의구조를 현행 일반, 공개, 非營利, 法人별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單一稅率로 통합하고 ▲주택상속공제 제도 신설, 공제액의 한도를 기초공제및 배우자공제등을 제외한 4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생활필수품화된 품목의 면세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사치성 소비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현행 定額의 근로소득공제를 定率공제로 전환하되 그 공제최고한도를 현행 1백6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를 신설, 급여 30만원이하 소득자의 直系卑屬 2人까지 공납금전액을면제하도록하고있다.

특히 附加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의 실행세율 10%를 7%로 인하하고 동시에 탄력세율 3%를 폐지하도록했으며, 所得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은현행 6%에서 4%로, 최고稅率은 현행 62%에서 60%로 인하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밖에 稅法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外穀도입 國政特委 同友會、결의안提出 民韓·국민同調얻어

民政同友會는 27일낮 民韓黨과 국민당의 동조를 얻어 過多導入外穀실태파악을위한 國政調査特委구성에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또『米國産地역에서 도입된 外穀중에는 사료로나 사용할수있는 低質穀도 있다』고 주장하고『정부의 外穀過多도입정책으로 米價하락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으므로 그진상을파악코자한다』고말했다.

서울올림픽 組織委 30명규모로 곧構成 全閣僚로 支援委도

88서울올림픽에 따른 기구설치등 대책을 논의키위한 관계자회의가 26일 하오 5시 중앙청에서 盧泰愚정무제2장관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명내외의 대회조직위원회와 閣僚全員이 위원이되는 올림픽지원위원회를 곧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全대통령、元曉大橋 始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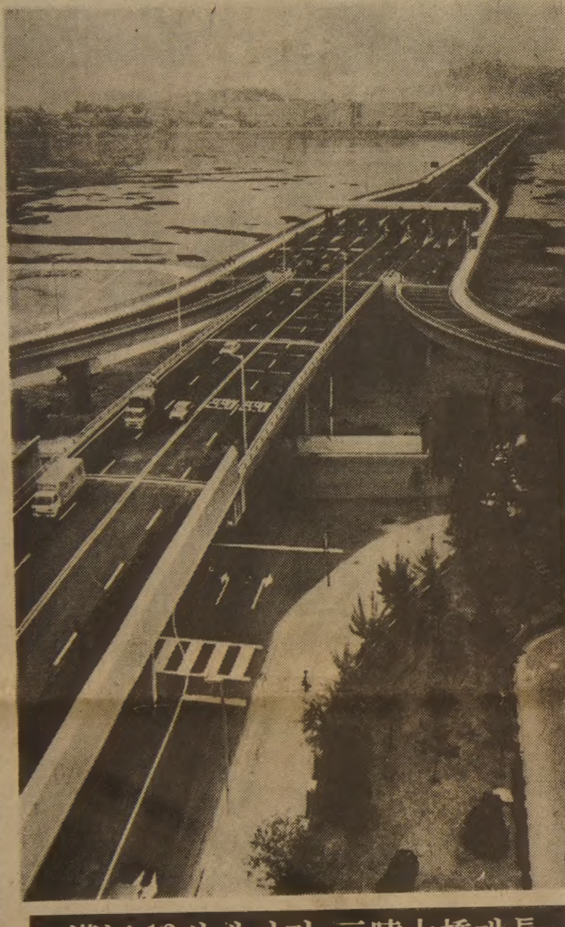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27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서울龍山區元曉路4街와 永登浦區汝矣島洞을잇는 元曉大橋준공행사에 참석, 준공테이프를 끊고 1천4백70m에달하는 다리위를 始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인 元曉大橋의 元曉路쪽 입구에 도착, 朴英秀서울시장의안내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어 安滑熙서울시 제2부시장으로부터 공사개요와 효과등에관해 보고를받고 영부인과 朴시장, 裵命國국회건설위원장, 龍山·麻浦및 永登浦區출신의 李斗玩 李賛赫(이상民正) 金在暎의원(民韓), 시공업체인東亞건설의 崔元碩회장등과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약1백m정도 걸으면서 다리양쪽 난간너머로보이는 강변도로의 造景등을 살펴본뒤 승용차에올라 나머지구간을 시주했다.

볼드리지美商務 全대통령이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27일상오 청와대에서 맬컴·볼드리지 美상무장관을 접견,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 워커駐韓美대사, 올머美상무성국제무역정책담당차관이 배석했다.



漢江 13번째다리 元曉大橋개통

◇한강의 13번째 교량중 가장 긴 元曉大橋가 27일 개통됐다. 서울龍山區元曉路4街와 永登浦區 汝矣島洞을 잇는 폭20m(4차선)총연장 1천4백70m의 元曉大橋가 착공 3년3개월만에 준공, 이날 하오3시 준공식에 이어 개통됐다. 서울시가 부담한 보상비 20억원과 東亞건설이 투자한 공사비 2백25억원등 모두 2백45억원이 투입된 元曉大橋는 1한강교와 서울대교의 폭주하는 교통량을 흡수, 서부역—청파동—원효로—여의도—대방동간의 새로운 간선도로 기능을 하게된다. 특수콘크리트를 이용한 국내최초의 西獨 디비다공법으로 건설된 이교량은 공사비 전액을민자로 충당, 20년동안 東亞건설이 관리하면서 통행료를받는다.

地平線

한국일보

미국동부에서는 요즘 山蔘을 캐는 심마니들이 성업중이라고 한다. 山蔘캐는 사람을 우리말로 採蔘꾼, 심메꾼, 심마니라고부르는데 영어로 생(SANG)이라고 하니 蔘과비슷하게 들린다.▼우리나라에서 山蔘이 많이나는고장은 平北 江界로 알려져왔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도 몇뿌리 캘수있으나 운이나쁘면 몇달동안 深山幽谷을 헤매도 한뿌리도 캐지못하는것이 山蔘이다. 혼자캘때도 있지만 몇사람씩 떼를지어 入山할때가 많고 그우두머리를 御人이라부른다. 御人다음엔 精才라고 炊事를 맡았고, 처음入山하는이는 小侍人(소뎅인)이라고했다.▼入山期는①苗節=춘분때 나서 자라나 딴초목이 너무 무성하지않아 식별이쉬울 때 ②丹節=여름 인삼열매가 익어 빨개져서 금방 발견할수있을때 ③黃節=처서 후에 인삼잎이 누렇게변할 때、다른풀잎도 색이바래지나 숙련된 심마니눈은 멀리서도 판별이 될때이다。한때 미국에서도 10월은 딴식물 잎들이 물이들때 인삼잎만 아직 푸르기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현지소식이다。미국 山蔘질은 우리한데 뒤떨어지지만 수출량은 세계서 제일많다고한다。1백년묵은「녹색의 금」은 수천달러씩 받는 모양이다。유태인 수집상의 손을 통해 홍콩을 거쳐 중국인에게 山蔘을 판다고 하는데 江界에 몰리던 옛 중국상인들을 생각나게한다。▼山蔘캐는 入山日은 예부터 吉日을 택했고 不淨을 막기위해 1주일전부터 목욕 齋戒하고 여성과의 동침을 삼갔다。아무말없이 묵묵히 걸어야하는 산길에서 혹시 여인과 마주치면 먼저入山者임을 알려 그 여인이 길옆에 등을 돌리고 피하게한다음 치마쪽 한 모서리를찢게해서 받는 습성도 있었다。이것은 여성색기에 魔力이 있다고 믿어 그 옷으로귀신이나 맹수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운좋게 山蔘을 발견했을땐『芳草가있다』고 크게 외치고 御人명령에따라 채취하고 그자리엔 종이나 동전을 묻어 報償을 했다。▼人蔘의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山蔘이 귀하고 人蔘재배만 성하고 있으나 世祖때는 3천근을 採取했다는 기록이있다。1929년에 한뿌리 82g에 3천3백円에 거래되었다고도 한다。광기에 맞닿는 5~6年生 人蔘재배도중요하지만 1백년묵은 山蔘과 맞먹는약효를기진 인삼을재배할 방법은 없는지 遺傳子工學革命소식을 들을때마다 궁리하게 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5
은 : 온스당 US 9.6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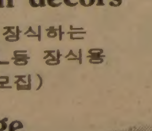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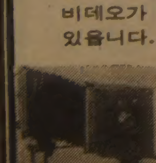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을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통닭구이집

한국의 얼이 담뿍담긴 명물중의 명물, 빈대떡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기구이 통닭과 함께 특별봉사합니다.

아침1시까지 문을 열고 있사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일차 발걸음을 658 Bloor St.W. 로 돌려 보시지 않으렵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고계시거든 537-0432로 전화다이얄을 돌려오십시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가호속에 평강을 빌며—.

주인 백

FINE DESIGN

INTERIORS
•GRAPHICS

기능적이며 능률과 효과있는 영업장소를 설계하여 드리며, 아늑한 가정분위기를 꾸며드리는 실내 장식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요구에 충족하는 디자인과 공사를 자신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에델하우스와 코아그룹운영(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작품
오리지널·리 의상실 ■ 김 보석상 ■ 명동장 ■ 파라다이스 선장 ■ 오나시스외 35여 영업장소
동신교회 실내 ■ 서울공대 채플실내 ■ 단국대 도서관 휴게실
연대 커피하우스및 행사무대디자인 ■ 이대 문리대 휴게실및
메이데이 축제디자인 ■ 기타 부유주택설계및 실내장식

조 덕남 622•5328

이스라엘·埃、來4일 閣僚회의

PLO自治 조속妥結키로

自治委설치 집중論議

"協商순조로우면 이軍철수한다"

베긴-埃外相합의

【예루살렘26日AP=聯合】이스라엘과 이집트는 26일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대한 팔레스타인 자치의 조기실현을위해 오는 11월4일 각료급협상을 재개、중동평화의 핵심문제인 팔레스타인문제를 신속히 종결시키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베긴 이스라엘수상과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은 이날기자회견에서 이·埃양국이 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협정정신에 의거、현재 진행중인 실무회담의 격을높여 11월4일의 카이로각료협상을 통해 팔레스타인자치문제를 타결키로했다고 밝혔다.

베긴수상은 11월4일의 양국각료협상이 요르단 강서안과 가자지구의 선거를 통한 「자치위원회」설치를 집중논의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의 실질적인 타결을 모색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팔레스타인자치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이 금년말까지 기울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정상적인기능을 발휘할경우 이스라엘은 14년간에 걸친 ▲점령지구의 군사정부해체 ▲점령지구로부터의 군대철수등의 조치를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이집트양국이 당초 오는 11월9일 각료급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을 재개하려했으나 팔레스타인자치문제가 최우선순위의 긴급문제라는 양국의 인식에따라 협상일자를 앞당기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대해 점령지구의 군사배치상황을 상세히 설명할것이라고 말하고 이협상에는 이스라엘측에서 아리엘·샤론국방상、이츠하크·샤미르외상、요세프·부르그내상이 참석하고 이집트측에서는 알리외상및 부트로스·갈리외무담당국무상등이 참석할것이라고 말했다.

◇埃外相과 회담하는 베긴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右측2번째)이 26일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및 아리엘·샤론국방상과 회담을 갖고있다. 【예루살렘26日AP電送=聯合】

"이大運河계획은 重大挑發"

아랍 21國、유엔總會議題제의

【유엔본부26日AP=聯合】21개 아랍국들은 26일 地中海와 死海를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매우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이 이문제를 총회의제로 다뤄줄것을 정식 제의했다.

아랍국들은 이운하가 전설되기까지 최소한 8~10년이 걸리게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운하가 통과하게될 가자지구 요르단강서안지역을 아랍측에 반환할 용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波軍、지방行政業務장악

"經濟질서 회복" 내세워

"勞組총파업 政府전복위한것"

【바르샤바26日AP=聯合】폴란드정부로부터 지역분규를 해결하고 경제질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폴란드軍 특수부대는 26일 약2천여개의마을과 읍의 행정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각 진주지역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당국은 자유노조의 28일 총파업계획은 오로지 정치적이며 국가전복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당국은 결코 이를 용인치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정부소식통들은 군복무경력이 많은 노련한 장병들로 구성된 소단위 특수부대들이 각파견지역에서 행정기구의 일부를『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관측통들은 이들 파견군은 사실상 해당지역 행정업무를 거의 완전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특수군의 진주및 행정업무 장악으로 주민들이 심리적충격과 압박을받고있으며 현지방 관리들도 소외감과 회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폴란드 공산당과 민주당및 親공산계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특수군의 진주는 거의 혼란과 소요를 준비하고『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말하고 자유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 경우『중대결과』를 빚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生命工学時代를산다 <2>

「遺傳子操作」의 技術혁명·産業化의 충격

스탠퍼드 科學研究所

작년研究費 1千억원 넘어

아이디어의 流出統制 엄격

"인터페론處方은 宇宙工學의 달着陸단계"

『글쎄…아이디어가 있고 돈이있다는것이 가장큰 이유겠지요』

미국의 DNA산업을 일으키고있는 이유를 스탠퍼드과학연구소(SRI) 생명과학담당 부소장 W·A·스킨너박사는 아이디어와 돈줄이 유전공학의 견인차임을 강조했다.

DNA산업은 아직은 산업이라고부를만큼 공장도없고、생산품도 나오고있지않지만 이론과 재정적 뒷받침이 확실하기때문에 그장래를 의심하는사람은없다.

미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항공우주산업분야와 컴퓨터산업에서 선두주자가된후 이제 또다른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제3의 독점산업을 창출해내고 있다.

SRI하나에만 적어도 6백명의 아이디어맨들이 들어있다. 3천2백명 직원중 3분의2선인 2천여명이 과학자들이고 이중 6백명은 이렇다할 명문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인물이다.

아이디어는 정문에서부터 보호되고 있는듯했다. 자동차바퀴가 연구소문턱을 넘어서면 벌써 현관의 감시안(眼)안에 들어가게된다. 연구소를 들어서자마자 공보담당자가 나와 방문객을 「보호」하기시작한다.

현관에는 꽤 두꺼운 방문객 출입독부가 비치돼있다. 방문객은 반드시 초청자의 이름과 함께 만날 사람、방문할곳、방문예정시간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사전약속 없이는 문전에도 가볼수없는 체제다. 생명과학담당 부소장 스킨너박사 연구실로 가 SRI의 유전공학 진전현황에 대해 질문 답변이 오갔다.

역시 인터페론 생산을 DNA산업의 첫 디딤돌로 잡고있었다. 인터페론 생산품이 병원처방전에 쓰여지기 시작하면 이는 우주항공과학의 「달착륙단계」쯤으로 알라고 말하면서、스킨너박사는 빙긋 웃었다.

꼬불꼬불한 연구실을 돌아 뒤쪽으로 한참 나갔을때 원숭이 동물원이보였다. 꼬리가길고 몸이 가느다란 남미산 다람쥐원숭이 (스쿼럴 몽키) 가 창경원 원숭이집 보다는 서너배나 될직한 큰우리에 우글거리고 있었다.

DNA산업의 「달착륙 단계」인 인터페론을 생산할 실험용으로 잡혀온 놈들이다. 스킨너 박사는『이 다람쥐원숭이가 DNA산업에 공을 세울 놈들』이라고 말하며 이미 SRI는 원숭이에게 인터페론을 주사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있다고 말했다.

SRI는 순수한 연구기관으로 인터페론 생산품이 시장에 나온다해도 이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을것이지만 갖출만한 공장시설은 다 갖추고있다. 75m짜리 발효로、정제시설、포장시설등.

『유전공학자들이 SRI에 몇명이나 있는가』스킨너박사는 정확한대답을 회피하면서 DNA과학은 화학、미생물학、유전학등의 집약과학일뿐아니라 현재는 SRI가 DNA과학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있어 꼭 DNA전문가가 몇명있다고 할수는없다고 말했다.

SRI의 DNA관계 인력자원 공급원은 시터스社나 지넨테크社와 마찬가지로 스탠퍼드大、UC샌프란시스코大、UC버클리大가 주류. 스킨너박사자신도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은후 교수직을 맡고있다가 73년 이곳으로 옮겼다.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분리하려는 이들도 많다.

SRI과학자들은 말하자면 연구를 위해 교수를 회피한 그런 인물들이다. 『SRI는 연구중심으로 가는 과학자들에게는 알맞는 장소인듯. 보수수준이 대학교수보다 훨씬 높으며 온시간을 연구에만 쏟을수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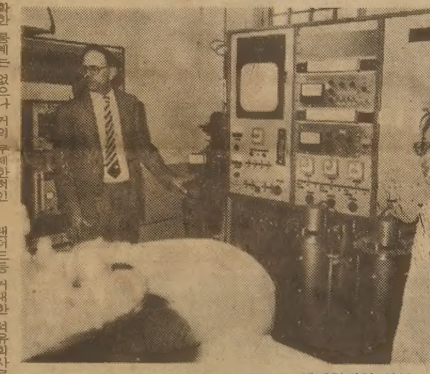
연구소 한쪽에는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져 있었다. 연구소에 들어선 과학자들은 실험실、구내식당 아니면 이 골프장을 돌며 하루를 완전히 경내에서 보낸다.

지넨테크、디넥스、시터스、국제식물연구소(IPRI)등 DNA 전초기지들도 나름대로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이디어의 외부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설때 만난 안내자가 실험실、원숭이 우리를 돌아 연구소를 빠져 나올때까지 같이 행동한것도 다 큰곳에서는 별로 볼수없는것이었다.

DNA산업에 투자되는 자본액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거의 무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RI는 80년 한해동안 순연구프로젝트계약으로 정부또는 개인기업으로부터 무려 1억6천2백15만달러를 얻어냈다.

이중 얼마가 DNA연구에 쏟아져 들어 갔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연구비에는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것이 스킨너박사의 대답이었다. 지넨테크나 시터스에서도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쉘·스탠더드등 거대한 석유회사로부터 림·업존、듀퐁등 대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DNA과학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자본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灣(DNA계곡)27日 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



◇SRI의 실험용발효 세계최대의 사설 과학연구소인 스탠퍼드 과학연구소(SRI)의DNA전문가 스킨너박사㊧가 실험용 발효로를 보여주며 DNA실험초기단계를 설명했다. 【朴世勳기자찍음】

오늘 유엔事務總長 1차투표…발트하임 3選겨냥

【유엔本部26日AP=聯合】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새벽영시30분(한국시간) 임기5년의 차기 유엔사무총장선거의 입후보자를 확정키위한 1차투표를실시할 예정이다.

1차투표는 유엔사상최초로 3선을 노리는 쿠르트·발트하임現사무총장과 살림·아메드·살림탄자니아외상이 경합할것으로 보이는데 26일현재 중공을제외한 14개이사국 대표들이 특정후보에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지않고있어 그전망을 전례없이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유엔사무총장 선출방식은 안보리가 1차로 입후보자를 확정한후 이들을대상으로 유엔총회 1백56개회원국들이 투표를 실시、당선자를 최종 확정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입후보자는 안보리투표과정에서 美·英·佛·蘇·중공등 5개상임이사국중 어느한 나라의 비토(거부권)를 받을경우 탈락되며 15개이사국중 최소한9개국의 지지를얻어야 총회선거출마가 가능해진다.

어느 입후보자도 안보리의 1차투표에서 5개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최소한 9개국의 지지를 못얻을경우 안보리는 최종후보가 선정될때까지 투표를 거듭하여 실시하게된다.

◇발트하임

◇살 림

이번 선거의 최대관심은 발트하임현사무총장의 3선여부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는 안보리의 1차투표에서 美·英·佛·蘇등 4개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얻을것으로 보이나 중공이『제3세계의 능력있는 입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입장을공공연히밝히고있어 그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발트하임총장에 도전하는 살림 탄자니아외상(39)은 51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원국과 93개비동맹국가들의 성원을 받고있어 발트하임총장에게는 만만치않은 상대가 되고있다.

입부소식통들은 제3세계진영이 또 유엔안보리가 살림후보를 도외시하고 발트하임총장을 내세울경우 발트하임총장에대한 투표를 일제히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회원국들도 이점을 인식、특정후보에 대한지지를표명치않고있다.

美、反核시위 擴散저지나서

나토結束 有害우려

【워싱턴26日AP=聯合】레이건 미국행정부는 주말인 24일과 25일 유럽전역에서 수십만명의 평화주의자들이 벌인 反核시위에서 표출된 유럽인들의 반미감정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결속을 해칠우려가 있는것으로보고 유럽의 反核평화시위가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노력을벌이기 시작했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정책이 군비를축소시켜 세계평화를 보존하는데 역점을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우리는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레이건대통령도 단순한 무기제한이아닌 무기감축을지지한다는입장을천명한바있다』고말했다.

"反核시위 擴大방침"

西獨반대단체들、西歐배치 沮止위해

【베를린26日AP=聯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신형핵미사일 서구배치계획에 대한 서독내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反미사일캠페인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방법상『무저항주의』를 개시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환경주의자단체인『그린·파티(녹색당)』의 롤란트·보그트대변인은 앞서 지난24일 西베를린『평화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오는11월의 모든집회에서 서구배치계획 항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印原電、放射能누출

【뉴델리26日UPI=聯合】인도라자스탄주 코타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1·2호기에서『심각한』방사능누출현상이 발견돼 어쩌면 1년간 이들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지 모른다고 인도관영PTI통신이 26일 보도했다.

PTI통신은 방사능누출사실이 1개월전 이 발전소의 원자로1호기 방사선차폐물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이를 수리하려면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에너지성의 한 대변인은 정부당국이 뉴델리남쪽4백km에 위치한 코타원자력발전소원자로의 방사능누출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핀란드大統領사임

【헬싱키27日AP=聯合】케코넨 핀란드대통령(81)은 27일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케코넨대통령은 건강악화로 지난9월초부터 모든 공식약속을 취소했었다.

"나토 會員여부 國內문제"

希파판드루首相, 會見서 밝혀

【런던27日AP=聯合】그리스社會黨정부의 안드레아스·파판드루新任수상은 26일 그리스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존속여부는 어디까지나 그리스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파판드루수상은 이날밤 영국BBC방송과기자회견을 갖고 그리스와 나토사이에는『전략적목표와 지향하는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는『수년이 걸릴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파판드루수상은 또한 그리스가『核으로부터 해방된 유럽』의 개념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는 선거유세당시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리스의 나토회원자격문제에 관해 아직까지 나토로부터 즉각 탈퇴할 의사는 시사하지 않고있다.

國有化案 승인 프랑스下院

【파리26日AP=聯合】프랑스국민의회(下院)는 26일 피에르·모르와수상의 사회당정부가 제출한 5大공단및 38개금융기관 국유화안을 찬성3백32표、반대 1백54표로 승인했다.

약2주일간의 열띤 토의끝에 하원의 승인을 얻은 기업국유화案은 곧 상원에 넘겨지게되는데 상원은 하원과달리 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있어 국유화안 승인에 큰어려움이 따를것으로보인다.

回敎過激분자 30명追加체포

이집트保安軍

【카이로26日UPI=聯合】이집트보안군은 26일 수개섬에 산재돼있는 회교테러단체들의 은신처를 급습、회교과격분자 30명을 추가체포함으로써 지난6일의 사다트대통령암살이후 체포된 회교과격분자들의 수는 모두 4백27명에 이르렀다고 반관영 알·아람지가 보도했다.

海外토픽

캡슐·호텔 大人氣

★日本…술꾼들도 活用

업무관계로 타지방에 단기출장중인 「샐러리·맨」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있는 日本의 캡슐·호텔(사진)。

地上의 宇宙船이라 불리는 이 캡슐·호텔은 캡슐 하나에 한사람정도가 들어가 휴식을 취할수있는것으로 보통사람이 선채로 팔을 벌리면 천장과 양쪽벽에 가까스로 닿고 자리에 누울때는 머리와 양쪽발도 벽에 닿을말락한 공간이 확보돼있다.

하루밤 숙박비가 약12달러(韓貨약8천4백원)인 이 캡슐·호텔에는 통상 3명의 常時직원과 2명의 시간제근무원만이 고용돼있어 호텔관리人力을 대폭 줄일수 있는 잇점이 있을뿐 아니라 수납·회계업무는 모두 컴퓨터로 처리된다.

이 캡슐·호텔은 주로 객지에서 숙박비를 절약하려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늦게까지 술좌석등에 남아있다 막차를 놓친 열차통근자들 사이에도 각광을 받고있다. 【東京=UPI】

教皇저격범 斷食

★바티칸으로 넘겨달라

로마 교황요한·바오로2세 암살미수죄로 이탈리아에서 종신형을 살고있는 메메트·알리·아흐자(23)는 아스콜리·피체노의 중형자형무소에서 자신을 교황청당국으로 넘겨줄것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로마=AP】

經濟短信

▲石油協、제1회石油세미나=大韓石油協會는 29일 全經聯국제회의실에서 「80년대 석유산업의 좌표와 진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三星電子、석유스토브개발=三星電子(대표 姜晉求)는 겨울용품인 가습기와석유스토브·전기스토브의 새상품을 개발、시판에 들어갔다.

▲古里原電건설 美側책임자부임=美웨스팅하우스社는 古里원자력발전소2호기건설의 총책임자로 제임즈·W·보릭씨를임명、27일자로 부임했다.

메아리

우리가 공식적으로 양력을 처음 채용했던것은 구한말인 1895년의 일로서 그 시행의 연륜은 86년에 지나지 않는다. 양력을 채택했으면서도 태음력은 여전히 우리 생활과 세시풍속 속에서 긴하게 쓰여졌으며 4대명절인 구정과 한식·단오·추석등은 오늘토록 널리 지켜지고 있다.

특히 구정의 경우는 최근의 한 여론조사의 결과 구정을 쉰다는 회답이 조사자의 87%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이니 우리 생활속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알수가있다.

그래서 구정을 논란할 아니면 민속적이나 경조일의 명칭으로 공휴일로 하자는 여론이 높았고 이를 받아 국회에서도 정식 논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26일 국회에서 김용휴총무처장관이『구정공휴일화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화시책과 국제화시대에 역행된다』고 하여『앞으론 다시 이 문제로 하여 논란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舊正是非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정부내에서도 경제부처와 총무처등이 2중과세로 인한 번잡과 물가앙등및 휴일의 연속으로 인한 수출의 타격을 이유로 반대했고 내무및 보사부에서는 많은 국민이 구정을 쉰다는 점에서 찬성이었으나 이제는 각내의 의견은 통일이 된 것 같다.

또 설이『단군이래의 우리민족고유의 명절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더구나『조상숭배정신및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문제는 구정의 공휴화문제와는 별개의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문화적인 추세속에서는 가장 국제적일수 있다는생각도 사회일각에는 있고보면 과연 구정의 공휴지정이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행하는 것이냐에 대한 일반의 의념은 의념대로 남는다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다.

정부가 내린 이번 결론은『신중한 분석과 검토의 결과』이겠으나 과연 다가올 구정을 외면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것인지는 두고 보아야할 일일것 같다.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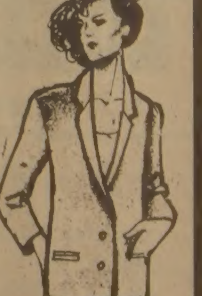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코스모스

돌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주간女性

10월 25일자
인기절찬 판매중!

사랑의테마 特輯「남편 外道」
국민훈장 탄 雪嶽山 파수꾼
올림픽 마크 그린 李權文씨
컬러화보 미용 新體操 특집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밭식품포함)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契 파동이 줄었다

主婦들「알뜰家計」위해 몸사린듯

하루 1~2件 例年의 절반

企業化된 새마을·낙찰契 위험

계(契) 파동이 크게줄었다. 작년까지만해도 서울과 지방곳곳에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최고 억대의계가 자주깨져 자살소동과 가정파탄이 계속돼, 경찰에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경찰서창구에 접수되는 계사기사건은 하루에 1~2건 정도로 한창계가 많이깨질때의 5~6건에비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警察署 몰려와 떼쓰는 모습 사라져

이처럼 계파동이줄어든 세태에대해 수사관들은 불경기때문에 이미 깨질계는모두파탄이났고 가정주부들도 알뜰가계를 위해 몸을사리거나 계에 들혀편이안돼 계모임자체가 불황을 겪기때문인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계는 원래 친목을목적으로 주로 부녀자들이 즐겨했던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친목외에도 재산증식또는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널리 유행돼 지난해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주부들의87·3%가 계에 든것으로 밝혀졌었다.

따라서 계가성행하면 경기가 좋은것으로, 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불경기의 상징으로 통할만큼 유행했던 모임이었다.

또 계자체가 친구를중심으로한 주변인물들의 모임이기때문에 잘될때는좋지만 일단 깨지면 피해를보는 사람들이 모두 가까운사람들이어서 사회적 물의를일으키게 마련이고 심한경우 자살 또는 가정파탄을 몰아왔었다.

계파동이 심했던 작년과 금년1~2월까지만해도 서울시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의 절반이상을 계사건이 차지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쩍 줄어들었고 경찰서 주위에서달아난 계주의 처벌과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등 떼를쓰던 주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된것.

계는 원래 이웃이나 씨족간의 친목등을위해 조직된것이많아 계의종류도 쌀계, 장학계, 회갑계, 친목계등으로 다양화됐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기업화된 계가 늘어났고 기업화된 번호계, 낙찰계, 새마을계등이 자주 깨져 사회의 물의를 빚어온 것이다.

기업화된 계의 경우 억대의 계 20~30구좌를 운영하는 왕계주밑에 천만원대의계를 운영하는 중간계주가 있어 중간계주들이 구멍가게등 영세상이나 샐러리맨가정의 주부들로부터 계금을 모아왕계주에게 붐입하는 방식이전형적인 것인데 규모가 큰 왕계가 깨지면서 중간계가 파탄이나고 4~5단계를 거쳐 연쇄적으로 최종 가입자인가정주부들까지 피해를 입게되는 것.

서울 변두리 경찰서 계전문수사관들에 의하면 계사기사건은 지난해 연초부터 중순사이에 늘어나기 시작, 금년 1, 2월을 정점으로 부쩍 줄어들기시작, 9월과 10월사이에 접수되는 숫자는매일 1~2건으로 많을 때의 5~6건에 비하면 절반도되지않는다는 것이다.

한 경찰서의경우 지난해연초 접수된 계사건은 전체고소고발사건 12~13건중 절반가량인 5~6건이었는데 금년6월이후부터는 1~2건으로 눈에띄게 줄었다.

또 K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 2월 30여건의 계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1, 2월에는 50여건이던것이 9, 10월 사이에는 10건이 채못된다는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추세에대해 기업화된 계의 속성때문이라고 풀이, 왕계가 파탄되기시작한 시점이 79년부터의 불경기가 심화됐고 부동산투기억제책등이 거듭 발표되던지난해 1, 2월께였다는 것.

이때 계사건의 특색은 관련자수는 작으나 피해액수는 대부분 1억대를넘었다는것.

이처럼 왕계가 깨지자 중간계가 깨지게됐고, 최종가입자인 가정주부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입게된것인데 이 연쇄반응이 가장 심했던것이 지난1, 2월로 거래 피해액수는 1백만원 단위였으나 관계된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요즈음 접수되는 계사건도 새로이 조직된 계가 깨졌다고 고소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계의 계주가 돌려주기로한 계금을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하는사례가 대부분이라고밝히고 계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다는 사실도 고소건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라고말했다. 【鄭榮鎬기자】

나이팅게일 記章 李順子여사 수여 李成玉여사에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7일상오 梨花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제76주년기념식및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식에참석, 李成玉여사(高麗병원간호과장·59)에게 나이팅게일기장을 수여했다. 〈사진〉

三陽·新吉어린이집 開院式참석 선물도

李여사는 이어 이날하오 서울道峰區 三陽어린이집과 永登浦區 新吉어린이집 개원식에 차례로 참석, 개원테이프를 끊고 크레용파스 원아복등을 원아들에게선물했다.

女強盜에 閨달러女人 피습

대낮 鈍器로 머리치고金品털어

26일 하오 3시30분께 서울冠岳區奉天6洞山81 金모씨(42)집 안방에서 金씨의 처조카 林英姬씨(34·여·주거부정)가 암달러상 朴今禮씨(49·여·龍山區東子洞19의75)의 머리등을 둔기로막구때린뒤 현금, 자기앞수표등 3백6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부상을 입고 한독병원에입원중인 朴씨에 따르면 이날낮 평소 안면이있는 林씨가 집으로 찾아와『일화 1백20만엔을 한화로 바꿀테니 함께가자』고 말해 金씨집으로 들어서는순간 갑자기 林씨가 길이 80㎝가량의 완력기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것.

林씨의 고모부인 집주인 金씨에 의하면 林씨는 지난 66년 韓모씨(43)와 결혼, 1남3녀를 두었으나 지난79년 韓씨와 이혼, 東平和시장에서 의류상을 하다 실패한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냈으며 평소 金씨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銀行앞서 車치기 千萬원털어 도주

犯行車 중학생치고 뺑소니

26일 하오3시10분께 경기安養市飛山洞 상업은행 安養지점앞에서 온라인 송금을하러가던 安養市飛山洞540 9 태창석유취급 제일주유소 경리직원 宋錦順양(25)이 2인조 차치기범에게 현금과 수표등 모두 1천7백70만2천7백60원을 날치기당했다.

범인들은 宋양으로부터 돈이든 가방을 빼앗아 미리대기해둔 서울2가5237호 갈색 포니승용차로 달아나다 범행10분뒤에는 범행장소로부터 약8㎞떨어진 始興郡果川面官門里果川구도로입구에서 길을 건너던 김위철군(14·果川한일중1년)을 치어 전치2주의 상처를입히고 서울쪽으로 달아났다.

범인들은 범행직후 飛山洞 4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水原쪽으로 달아나다軍浦4거리에서 방향을바꿔 서울쪽으로 달아났는데 경찰수사결과 범행에쓰인 차량은지난16일 서울龍山區漢南洞에서 도난당한것으로밝혀졌다.

아파트 母女살해 放火

대낮 富川서 손발묶고 옷벗겨져…被害品없어

서성거린 두남자등 面識犯추정 집중수사

26일낮 12시10분께 경기富川市驛谷洞 제4지구 수정아파트 A동101호 金大植씨(26·신탁은행 서울永登浦지점근무) 집에 괴한이 침입 金씨의 부인 金麗淑씨(27)와 생후10개월된 金씨의장녀 慈惠양을 살해하고 부엌싱크대위에있던 석유곤로를 안방으로 옮겨와 장롱에 석유를 뿌린뒤 불을지르고 달아났다.

숨진 金씨는 코피포트와디지탈라디오의 전기줄로 손발이 묶인채 오른쪽 어깨와 좌측 대퇴부를 가위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하의도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慈惠양은 외상이 없어 장롱에 불이났을 때 연기에 질식, 숨진 것으로 보인다.

金씨집 바로위층 201호에 사는 韓英順씨(28·女)에 의하면 갑자기 타는 냄새와 함께 아래층에서 연기가 솟아올라 내려가보니 金씨집의 문이 열려있고 연기가 자욱해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들어갔는데 장롱에 불이 붙어 목욕탕물을 퍼다 우선 불을 끄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고 쓰러져 있는 金씨와 慈惠양이 숨진 것도 모른채 지나가던 타이탄 트럭에 태워 富川 제일병원으로 옮겨갔으나 이미 숨이끊어진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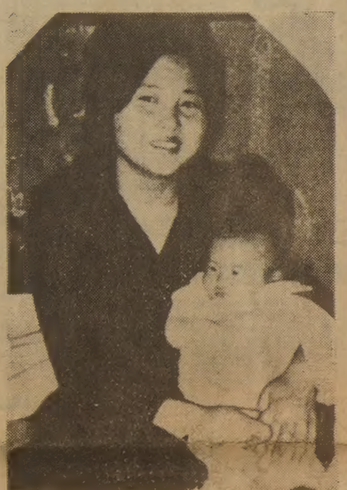
숨진 모녀의 시체에서는 화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살해된 방안에는 모녀가 밤을구워먹고 있었는지 생밤과 밤껍질이 널려 있었다.

驛谷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金씨집안방에 있던 다이어먼드반지·금반지·수표·현금등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것과 숨진 金씨의 하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는점, 또 金씨를 살해한뒤 불을질렀다는 점등으로 보아 면식범이 난행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거나 절도범의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金씨부부의 주변인물에 대해 수사를 펴는한편 사건발생직후 옷에 페인트가 묻은 남자 2명이 101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이아파트 301호 이강제씨(48)의 진술을받고 이들2명의 행적을 캐고있으며 평소 이집을드나들었던 외판원과 배관공 5~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또 27일 상오 현장감식결과 현관문 손잡이에서 지문2개와 숨진金씨의 입에서 모발1개를 채취, 범인의 것인지 여부를알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남편 金씨는 이날 예비군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건이난것도 전혀모른채 밤7시께귀가, 참혹한 현장을 보고 그자리서 졸도, 인근 富川제일병원에 입원했었다.

사고가난 수정아파트는 17평짜리 3층3동에 36가구가 살고있는데 서민아파트로 경비원을 두지않고있으며 관할 驛谷파출소와는 1㎞ 떨어져있다. 또 이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점으로 대낮에도 인적이 드문곳이다.



◇피살된 金麗淑씨와 딸 慈惠양.

"花園조성 怨恨없다"

申告미룬것은「자체 수습」하려

금복주 金사장 記者만나

【大邱=盧基昌기자】금복주 金泓稙사장집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수사착수 닷새째인 27일 현재 花園동산개발에 따른 원한관계를 집중수사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용의자를찾지못해 수사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있다.

경찰은 大邱中區校洞(校洞시장)의 전자중고품상회에 20여일전 30대남자가 타이머를 구하러 다닌적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타이머를 판 상인및 범인이 폭발물을만드는데 사용한 엘보(수도관연결부분)를 판 수도기재판매상, 또는 철물상을 찾기위해 탐문수사를 펴고있다.

大邱市中區校洞 校洞시장내 D전기재료상회 주인 金모씨(40)에 따르면 지난5일께 얼굴이 갸름한편이고키 1백70㎝정도인 30대남자가 찾아와 전자제품용 타이머를 달라고해 없다고 말한후 돌려보냈다는 것.

경찰은 범인이 사제 시한폭발물에 사용됐던 타이머가 세탁기타이머로5~8분동안 작동될수있었던것과 연관시켜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타이머가 꼭필요한 사람일경우 시내 10여군데나 되는 전자부품 전문판매점을 찾아 구입하면되는데도 전기재료상회에서 타이머를 사려고한데 의문점을두고있다.

한편 金泓稙사장은 이날상오 大邱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과만나『나는 과거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일이 없기때문에 이번사건에 범인으로집히는 사람이 없다』고 잘라말하고『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金사장은 또『花園동산사유지 매입은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한것이며 토지수용절차를 밟거나 토지를 팔기를원치않는 지주들에게 강제매입한 일도없어 花園동산개발과정에서 원한을 살만한 일이없다』고 밝혔다.

金사장은 사건을 경찰에신고하지 않고 숨긴것은『사건자체를 대수롭지않게 생각, 종업원이나 거래처에서 한짓이면 자체수습키위해 간부들을시켜 조사토록하되 사건의윤곽이 파악되면 경찰에 알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金씨소유 화원동산(경북達城郡花園面城山1洞310)은 지난72년 大邱市가 시유지인 화원동산3만9천여평을 실제가격보다 훨씬낮은 평당6백원선으로 金씨개인에게 불하해준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市는 또 화원유원지를 金씨에게 불하해줄 당시 이일대37만8천1백25평을 유원지조성지역으로 건설부에 신청, 같은해8월25일 건설부의 허가가 나게한후 73년11월12일 경북도가 金씨소유대지 6만6천여평을 유원지로 지적고시해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市당국은 지난79년6월말 金씨가 거액을 들여 화원동산을 완공하자 이듬해인 80년5월 화원동산주변 城山1洞등의 농가 2백80여가구를 포함 32만7천여평을 자연녹지로 묶었는데 이때문에이일대 농가들이 증·개축이금지되고 농지매매가 되지않는등 사유권행사에 큰 제한을받아 자연녹지를 해제해줄것을 당국에 진정하기도 했다는것.

密販賣조직 11명구속

稅金계산서없이 위장去來 11億탈세

【釜山=聯】釜山지검특수부 金壽鎭검사는 27일 세금을포탈하기위해 11억여원상당의의약품과 주류를 세금계산서없이 위장거래해온 밀판매조직 2개파를 적발,「약품파」두목 趙來逸씨(42·蔚山상왕약품대표·蔚山市新亭洞516)를 비롯한 5명과「주류파」두목 李鍾順씨(43·서울江東區遁村洞155)를 비롯한 6명등 모두11명을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약품파」두목 趙씨는 지난1월부터 9월까지 각 제약회사들로부터 사들인 의약품중 일부만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10억9천여만원어치는 釜山 동아식품상회 외판부장 曺鍾律씨(30)를 통해 東萊약국 주인 尹炳龍씨(48)등 전국일원의약국에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해온 혐의이다.

不正편입학 5백명

大邱聖光高 校長 辭意표명

【大邱=聯】속보=大邱성광고등학교 학생 부정편입학사건을 감사중인 문교부및 대구시교위 합동감사반은 27일하오 2백여명의 학생을 부정으로 편·입학시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로써 성광고교측이 돈을받고 부정으로 편입학시킨학생수는 모두5백여명으로 늘어났는데 합동감사반은 28일까지 정확한 부정편입학생수와 찬조금 사용처등을 조사, 감사를마무리지을방침이다.

한편聖光고등학교장 李圭元씨(73)은 지난6년동안 학생들을 부정편입시켜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3억여원정도의 찬조금을받아 교사신축및 교지확장등 학교발전에전액을 투자했다고말하고 이번사건의 책임을지고 재단이사장직과 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징역5년 구형

前서울市 住宅局長

대검중앙수사부3과장 金道彥부장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심리로 열린韓信공영아파트분양가격책정 뇌물수수사건결심공판에서 전 서울시주택국장 孫日秀피고인(4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뇌물수수죄를적용, 징역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관련공무원 4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 최고징역2년에서 최하징역1년6개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私大 수익재산 총9백34억

漢陽大 63億 으뜸

東亞大 59億 2위

전국 69개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재산의 총액은 9백34억6천1백80만원으로 기준재산보다 1백7억원이 모자라며 대학별 수익재산보유 랭킹은 漢陽大가 63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많고 그다음이 東亞大로 59억8백만원, 檀國大54억8천7백만원, 延世大53억2천2백만원, 世宗大41억3천7백만원, 建國大39억6천7백만원, 朝鮮大39억5천7백만원, 亞州大35억5천만원, 啓明大33억4천2백만원, 梨花女大31억3천5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교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의하면 이밖에 수익용재산이 기준재산에 미달하는 대학은 42개대학에 달하고있으며 미달 재산액이 20억원이상인 대학만도 中央大30억6천만원, 東國大27억4천3백만원, 仁荷大23억6천만원, 高麗大23억8백만원, 崇田大21억5천만원, 圓光大21억1천7백만원등 6개대학에 달하고있다.

또 주요대학이 대학재산으로 올려놓은 수익사업체를보면 建國大가 요업공사, 전국빌딩, 啓明大가 경북인쇄소, 檀國大가 檀國제염공사, 東亞大 극동호텔, 서석공업, 延世大 세브란스병원, 봉대빌딩, 嶺南大 영남투자금융, 圓光大 이리보화당, 서울보화당, 漢陽大 한양빌딩, 동원빌딩, 高神大 복음병원, 國際大 새한빌딩, 金烏工大 공오기계공업사, 德成女大 해양회관, 明知大 서소문빌딩, 남산빌딩, 釜山女大 극동수출포장, 順天鄕大 유일건설, 동은의료기, 仁濟醫大 서울백병원, 韓國航空大 한일빌딩, 韓神大 한신빌딩등이다.

국민1人當輸出額 4백58弗

商工部 작년실적 조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수출액은 4백58달러로 유럽각국이나 日本등에비해 크게뒤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공부가 조사한 지난해 국민1인당수출실적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인구2백39만명인 싱가포르가 1백93억7천9백만달러를 수출, 국민1인당수출액이 8천1백8달러로 가장많고 다음이 인구1천4백14만명인 네덜란드로 7백38억3천6백만달러를수출, 1인당 수출액이 5천2백22달러에 이르고있다.

3위는 西獨으로 1인당3천1백34달러, 그다음은 프랑스 2천1백60달러, 英國2천60달러, 이탈리아 1천362달러등의 순이고 日本은 1천1백12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백38달러에 그치고 있다.

침맞고자다가 숨져

無免許鍼灸士 수사

【全州=聯】27일 새벽0시께 전북扶安郡扶安邑東中里4구130의1 무면허침술가 朴봉현씨(47)집 안방에서 扶安邑西外里531 朴용희씨(38)가 잠자다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朴씨는 어깨에 통증이 심해 26일하오6시께 집주인 朴씨로부터 침을맞은뒤 이웃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먹고 잠을자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숨졌다는것.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詩壇

가을에 죽자는 詩人에게

李相國

요, 얼마전 신문엔
가을에 죽자는 詩人이 있었다.
한쪽 다리는 이승의 늪에 빠져 있고
다른 한쪽은 저승의 골짜기를 헤매인
다는
인천에 사는 浪承萬 詩人
그의 詩의 깊이만큼
아픔의 깊이도 크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실 그날 낮
서울운동장에서
축구 구경을 하고 있었다.
熱狂하는 觀衆 속에서
밀리고 미는
힘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무쇠같은 젊은이들의 다리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다시 浪兄의 鶴다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참으로 莊嚴한 가을빛이 내리는
日夜에 앉아
이승의 다리와
저승의 다리가 共存하는
不可解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浪兄의 詩集이
入場券만큼이나 팔리는 날은
그래도 조금은 그도
莊嚴해 지리라 自慰하고 있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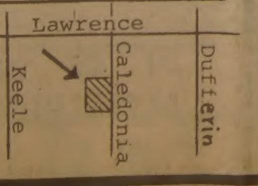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금주의 스페샬

Nov. 2 - Nov. 14

Cadbury thick bar	36/55¢	$13.15
California twist red	60/10¢	3.09
Vicks	20/40¢	4.95
Acta throat soothers	20/40¢	4.75
Fruitella	36/25¢	5.09
Hubba bubba presenter	96/30¢	16.69
Bazooka gum	36/10¢	2.25
Leaf ball gum	72/5¢	2.39
"	48/5¢	1.59
"	48/10¢	3.19
"	36/10¢	2.39
Moirs bag candy	24/25¢	3.45
Velour toilet tissue	24/4's	31.45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789-7214(MR. 김)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저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백 화 기 목사
강사소개: 학력— 대구 개명대학 졸업
한국신학대학 졸업
침례교 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졸업
경력— 포항침례교회 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일 시: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美 살라자르 마라톤世界新

2시간8분13초…12년만에 更新
女子도 앨리슨·로 2시간25분29초로 新記錄

뉴욕市大會

◇2시간8분13초의 세계기록을 세운 살라자르가 결승테이프를 끊고있다. 【뉴욕25日AP電送=聯合】

【뉴욕25日特電=聯合】세계마라톤남녀 최고기록이 한꺼번에 깨졌다. 25일 뉴욕에서열린 뉴욕시 마라톤대회서 쿠바 하바나태생의 미국인 알베르토·살라자르(23)는 2시간8분13초로 69년5월30일 호주의 데렉·클레이튼이 세운 2시간8분33초6의 기록을 12년만에 분쇄했다. 마라톤을 뛴지 두번만에 세계기록을세운 살라자르는 작년 이대회서도 2시간9분41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조용하고 냉정한 살라자르는 英國의 케니, 멕시코의 호세·고메스, 폴란드의 마르차크와 경쟁을 벌였으나 25~27㎞지점서 이들을 제치고단독선두에 나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문서 뉴질랜드의 앨리슨·로(24)는 2시간25분29초를 기록, 작년 이대회서 최고기록을 세운 그레테·와이츠(노르웨이)의 2시간25분42초의 기록을 깨고 세계 최고기록을 세워, 남녀 기록이 한꺼번에 깨지는 진기한 현상을 보였다. 살라자르는 두살때 미국으로 건너와 오리건 대학을 졸업했고, 앨리슨은 오클랜드에 있는 한 회사의 비서직에 근무하고있다.

한편 살라자르가 마라톤세계 최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한국 마라톤 기록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기록은 74년 文興柱가 세운 2시간16분15초. 세계기록에 8분3초 뒤지고있다.

海外스포츠話題

클레이튼기록 「非公認코스」시비
살라자르 世界新으로 해결

◆…살라자르가 최고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말썽많던 세계최고 기록 공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종전클레이튼의세계최고 기록은 기록이 수립된 벨기에의 앤트와프 코스가 공인코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니블(네덜란드)의 기록을 세계최고 기록으로 인정해온 실정이었다.

◆…살라자르가 마라톤을 뛴것은 이번이 두번째. 작년 이대회에 처음 출전한 살라자르는 2시간10분대를 넘어서겠다고 예언했는데 2시간 9분41초로 이 예언을적중시킨바있다. 이번에도 그는 2시간7분내지 8분대에 우승하겠다고 예언했는데 또 다시 맞춰, 대회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여자부문서 우승한 앨리슨·로는 포틀랜드 오리건주 육상서 4천달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정지를 당했던 선수. 그러나 자격정지 조처가 풀려 최근 보스턴 마라톤서는 2시간26분45초로 역대 2위를 기록하기도했다.

◆…남자1백m 벽은 9초9이고 마라톤은 2시간8분이 벽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해왔는데 8분벽이 무너질날도 멀지 않은듯. 살라자르는 8분벽을 깨뜨릴수있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생리학자들은 인체구조나 최대능력등을 감안할때 2시간5분대가 뛰어넘지못할 벽이라고 예언하고있다. 이 예언이 들어맞을는지는 자못 궁금.

◆…60년대초 세계 헤비급 왕자였던 잉게마르·요한슨도 이번 마라톤에참가, 4시간30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주파했는데 레이스가 끝난후『마라톤을 뛰는것 보다는 15라운드경기를 갖는것이 더쉬웠겠다』고 마라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욕시 마라톤은 세계최고기록을 수립했을뿐만아니라 2백50만명의 관중, 1만6천명의 선수가 출전, 관중과 선수출전에서도 마라톤사상최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마라톤이열린 뉴욕시의 기온은 10도이고 가벼운 바람이불고, 햇빛이 약간 비췄다.

◆…한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서 25일 거의같은시간에 열린 리치몬드마라톤서는 26세의 빌·힐선수가 결승라인 약5백m를 남겨놓고쓰러졌다. 힐은 골인을 앞두고가슴을 끌어안으며 젖은보도에 쓰러져 충돌했는데 의사와 구조대원들이 곧 출동, 병원으로 급송했으나 병원에 도착한후 곧죽었다. 【聯合】

한국女子팀 우승
웰포 1천m경기

25일 나고야(名古屋)에서 폐막된 제1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여자웰포1천m에서 3분55초51로 우승했다고 알려왔다. 한국은 여자 페어1천m서는 中共에 이어 2위를, 남자 페어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이대회에는 한국, 日本, 中共, 파키스탄등 8개국이 참가했다.

한국福祉團 2승
國際軍人농구선수권대회

【매나마(바레인)26日=聯合】韓國의 福祉團농구팀은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올림픽·홀에서 속행된 제28회 국제군인농구선수권대회 결승리그 2일째 경기에서 홈팀 사우디에 81-69로 역전승을 거두고 2승을 기록했다.

결승리그 1차전에서 아랍을 꺾은 福祉團은 이날 전반을 38-41로 뒤졌으나 후반들어 속공과 정확한 중거리슛으로 사우디수비를 교란시킴으로써 12점차로 승리했다.

福祉團은 27일밤 시리아와 결승리그 3차전을 벌이는데 예선리그에서의 전적으로 미루어 3차전도 무난히 이길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차전 전적
韓國 81 (43-28, 38-41) 69 사우디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連載漫畫)

"안녕하시오, 지나로브씨, 안녕 고르킨여사"
"여어 맥스웰, 안녕하세요 스웬슨씨"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샘·카아네기 강습소에 나가고 있다네" ※샘·카아네기=처세술을 가르치는 사설 강습소.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⑦⑧

非與非野의 立場
강압된 분위기속에 拔萃改憲案 통과
부의장 再選…與野양쪽서 공격받기도

정부改憲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逮捕, 국회가 成員이 안돼 空轉을 거듭하는동안 院內친목단체인 新羅會를 중심으로한 세력이 제3의 改憲案을 추진하고 있었다.

제3改憲案은 정부가 제안한것과 국회가 제안한 두가지 改憲案을 拔萃하여 짜맞춘 것이다. 그 골자는 대통령 직선제, 上下兩院制,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면직, 국무원에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등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拔萃改憲案이다.

拔萃개헌안의 명분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調和였으나 목표는 대통령直選을 통해 李承晩대통령의 再選을 보장하는것이었다. 上下兩院制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강력한 세력을 무마하려는 구실이었으나 실상 참院도 제대로 이룰 기미찬 우리나라 실정으로볼때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拔萃개헌안이 준비되고있는 동안 각지방의「民意」가 釜山에 집결,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른바 정부개헌안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시위나 다름없었다. 그「民意」란 各道의 지방의원들이었다. 공포의 그림자는 여전히 국회주변을 맴돌았다.

國際俱樂部사건이 터진것도 그때다. 52년6월20일 民國黨系를 비롯한 在野정치세력이「護憲」과「救國」을 내걸고 국제구락부에 모였다. 그 대회의 준비위원은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李始榮, 金性洙, 총리직을 사임한 張勉을 포함, 金昌淑, 趙炳玉, 徐相日등 60여명이었다.

국제구락부에서의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대회장에 몰려와 테러를 감행, 참석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괴하는등 적지않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그때 趙炳玉은 날아온 花盆에 얼굴을 얻어맞아 중상을 입기까지 했다. 또 주요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자택연금을 당했다가 뒤에 풀려났다.

이 국제구락부사건이 일어난 5일후엔 6·25 2주년 기념식장에서 李 대통령狙擊사건이 발생, 세상을 또 놀라게했다. 다행히 저격자의 권총탄알이 不發, 李 대통령은 위기를 모면했으나 이 사건은 정치파동과 얽혀 세상을 온통시끄럽게했다. 戰時의 파란 政局은 도대체 진정될 낌새가 없었다.

7월1일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국회가 개회되기 전 국회의원들은 경찰등을 통해 출석종용을 받았다. 때를 같이해 정치파동때 구금됐던 의원들 10명이 석방됐다. 自意인지他意인지 어디엔가 꽁꽁 숨어있던 의원들도 나왔다. 개헌안통과를 위한 비상책이 동원됐던 것이다.

7월4일밤 드디어 拔萃改憲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과 국회가 낸 개헌안의 조항을 발췌한 형식의 개헌안통과였다. 헌법에도없는 起立표결로 이루어진 표결결과는 可163, 否0, 기권3표였다.

연초에 있었던 정부의 개헌안 표결이 可19, 否143, 기권1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의 분위기와 정치풍토를 짐작할 만 하다. 강압적분위기에서 起立으로 贊意를 나타냈으나 일부의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개헌안이 통과된 뒤 1주일쯤 지나 국회에선 국회의장, 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엔 申翼熙의장이 再選됐고 부의장2명은 曺奉岩과 내가 뽑혔다. 나로서는 制憲에 이어 2번째로 부의장이 된 셈이다.

動亂一過후의 국회, 그것도 엄청난 波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지나간 뒤의 국회는 허탈과 落望,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부의장에 다시 被選되긴 했지만 나의 2대 국회의원시절은 괴롭고 안타까운 시절이었다. 야당의 중심세력인 民主國民黨곰수들은 여전히 나를 去勢해야될 政敵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新生 自由黨쪽에선 나를 경계인물로 점찍고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만은 나와의 오랜 私的관계나 충성으로 보아 親與인지는 모르나 公的으로는 自由黨쪽도 아니었고 民國黨편도 아니었다. 이런 입장은 점차 정치적 孤立의 길을 뜻한다.

2대국회의원시절의 초기 나와 행동반경을 같이 한 의원들은 약30명쯤 됐다. 그들중엔 나와같은 大韓國民黨소속인 竹山 曺奉岩, 李甲成과 任永信등이 중심인물이었다. 竹山과는 함께 국회부의장을 지낸 개인적으로도 퍽 친했다. 그도 개성이 강한만큼 남달리 서기를 꺼린 인물이다. 후일 竹山이 進步黨사건으로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을때 난 괴로운 마음에 잠을 이루질 못했다. 그는 容共의 인물이 아니었지만 주변을 잘관찰하지못해 禍를당하고 말았으니 불우한 정치인이었다.

독립운동 유공자인 李甲成은 성격이 강직해 바른 말을 잘하는 인물이었고, 女丈夫인 任永信도 굿대가 큰 인물이었다. 이처럼 나와 가까왔던 인물들은 비교적 개성이 두드러진 면이 강했다. 그런 나도 성격이 강한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政敵이 많았는지 모른다.

후일 내가 共和黨에 참여했을때 세상에선 비난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다. 그러나 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自由黨 통치시절 긴 세월을 격리당하고 고립된 정치인이었음을 제대로 보아주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렇다고 애써 변명하기는 싫었다.

◇정부의 대통령直選制개헌안이 否決된직후 李承晩대통령은 避難국회에 출석, 통과시켜줄것을 역설했다. 이후 정치파동을거쳐 拔萃개헌안이 통과됐다。

한국 2次도敗北
韓日排球 정기전

한국남자배구팀은 25일 日本 伊勢에서 속행된 올해 韓日남자배구대표정기전 2차전에서 日本에게 3-1로 패배, 2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27일하오 KAL편으로 귀국했다.

比·홍콩 勝者와
한국 2次대결
데杯 東部예선

韓國은 82년도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동부지역예선에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 2회전서 필리핀·홍콩승자와 대결케 되었다. 26일 대회조직위원회가 테니스협회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82년1월부터 5월까지열릴 이번 아시아지역예선에는 10개국이 참가, 이중 우승팀이 본선에 나가는데 韓國은 인도네시아와의 준결승전이 본선진출의 고비가될 것으로 보인다.

現代精工 金盃群우승
봉황기職場대항테니스

제8회봉황배쟁탈전국직장테니스대회에서 팀창단1년만인 現代精工이 韓火災海上保險A팀을 2-1로 꺾고 이대회 3개부문중 가장 수준이 높은 金盃群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8개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오른 銀盃群서도 農協中央會가 內務部와 접전끝에 패권을 차지했으며 銅盃결승서는 湖南精油 麗水工場팀이 美空軍 51전투지원단을 2-0으로 완파, 첫우승을 기록했다.

深淵서 솟는듯한 唱法에
日文學藝術人들 큰감명
金素姬씨 東京서 판소리공연

인간문화재 金素姬씨의 일본 판소리 공연이 16, 17양일 東京 세이부(西武)백화점 8층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정치평론가 다나까(田中明·전朝日신문 논설부주간)씨등 5백여명이 참석, 민중속에 자란 한국 서민예술을 감상했다.

명창 金素姬씨의 일본 공연은 아쿠다가와(芥川)賞을 받은 작가 나까가와(中川健次)씨를 비롯,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판소리 듣기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東京공연에 이어 大阪(25일), 京都(26일)등지에서 지방공연을 계속했다.

다나까(田中明)씨는「深淵깊숙한 곳에서 용출하는 金여사의 창에 감명받았다」고말했고 나까가와(中川健次)씨는『판소리의 무한한 변화에서 森羅万象의 조화를 느끼며 한민족의 위대한 음악성을 재삼 절감했다』고 격찬했다. 민속음악가인 구사노(草野妙子)여사는『민중의 哀歡과 풍자 그리고 正義를 음률로 나타낸 한국특유의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東京=宋本特派員】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賦 〈219〉
李炳注作 李友範畫

秋風何處至 ⑰

계남이 전주와 금구간을 왕래하며 정여립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 즈음 한양에선 임금과 이영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오갔을 것은 확실한데 유감스럽게도 전거(典據)를 제시할 순 없다.

『일전의 밀소(密疏)는 내가 잘 읽었다』
『황공하오이다』
『그런데 그 흔한 상소 가운데 그일에 관해 상소하는 자는 왜 없을까』
『상소가 있어도 중간에서 흐지부지 해버리는가 보옵니다』
『뭐라구? 그런 놈들도 역모에 가담하고 있단 얘기가 아닌가』
『여럽의 일이 탄로나면 그들의 당에 화가 있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것이겠읍니다』
『그렇더라도 역적의 모의를 방관한다는것은 언어도단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여립의 역모가 대사에 이르지는 않을것이라고 치고있는지 모르겠아옵니다』
『대사를 마련하고 역모는 역모아닌가. 이놈들을 어떻게해야 한단말인가』
『성상께선 가만두고만 보옵시오. 사태의 경위는 신이 소상하게 알고있으온즉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런일의 처리는 빠를수록 좋지않은가』
『…아니옵니다. 지금 이일을 거론하면 백방 사태를 왜곡하여 그런일이 없다고 만들어버리고 발설한자를 모함하는자로서 몰아칠 염려마저 없지않습니다. 놈들은 못할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흑을 백이라고 하는것쯤은 마(馬)를 녹(鹿)이라고 하는것보다도 여반장(如反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놈들은 조고(趙高) 이상으로 악랄한 놈들이 아닌가』
『그러하오니 잠깐 두고 보옵소서. 여럽의 역모는 지척을 손에 잡혀 있고, 여차하면 여럽을 멱살을 쳐들 만한 전의 책이 서 있아오니 걱정할 것 없읍니다. 신의 관심사(關心事)는 조정에 있는 중신들의 거조(擧措)에 있읍니다. 이기회에 숙청을 감행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종친의 원려 실로 탄복할만 허이』
『그렇지도 못하옵니다. 신임에 부응하지 못하와 황공하오이다』
『아닐세. 종친께서 내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주지 않았던들 나는 이 깊은 궁궐 속에 앉아 눈 뜬 장님, 귀 뚫린 귀머거리, 말할 줄 아는 벙어리가 될뻔했어. 계속 애써 주시구려』
『황공하오이다. 한데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정여립의 일엔 신이 무어라 여쭙기 까진 함구무언 하옵소서』
『알았소』
『수 삼일 후에 조그마한 책략을 부려 보겠읍니다』
『무슨 책략인가』
『여립의 역모를 누구에게 시켜 고변 할까 하옵니다』
『그래서?』
『그때 주상께옵서는 모든 대신을 부르시와 의견을 물어 주사이다』
『그렇다면 누굴 시킬 필요가 없다. 내가 비밀히 정여립의 고변사를 들었다고 하고 대신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하지』
『좋소이다. 그렇게 하소서』
『그 후에 어떻게 하지?』
『대신들이 무슨 소릴 하셔도 그 말에 승복하시는척 꾸미소서. 함구하신채로 말입니다』

모눈종이 위의 生 〈238〉
趙善作作 金光培畫

모눈종이위의生 ⑤

얼마 전 세호가 텔리비전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었다. 세호가 텔리비전에 나오는일은 이제 하나도 신기할것이 없을 때였지만 그래도 은애는 전회로 꼭 집에 알려 주었고 (세호가 호텔로 나가기전 집에 긴급 전화를 놓았다) 그러면 어머니와 나는 반드시 텔리비전 앞에 앉곤 했던 것이다. 그날도 그렇게 텔리비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세호의 노래<우리는 서로가모순의 별들. 한동안 우리의길을 잃었는데 어쩌랴>하고끝맺자 어머니께서는『재 노래가 어쩌면 내 마음 속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점이요?』하고 내가 여쭈어 보았으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외면하셨다. 하나뿐인 아들의 성공도 성공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세호의 노래가 당신의 근황, 마음의 풍경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하시는 눈치였는데, 그즈음 당신의 눈은 정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던 것이다.

술 때문에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는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셨고, 감기를 좇는 데는 역시 술이 좋은 약이라면서 저녁마다 술을 드시곤 했는데 은애는 그런 어머니에게 값비싼 외국산 술을 떨어지지 않게 대고있었다. 한번은 술에 취하셔서 세호가 나오는 텔레비전의 쇼 프로를 보시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서교동에 전화를 거셨다.

『당신 지금 우리 아들 노래를 듣고있는거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서로 이름 부르며 우리를 찾겠수? 안 그래요 여보? 희망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랬수. 봐요, 세호가 다 얘기해 주지 않는가.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입시다. 모여서 한데 살아요. 네? 우리가 당신의 몸에서 하나였듯이 우리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잖아요? 모여 살기 어려우면 우리 세호를 앞세워서 어디 가족 여행이라도 떠납시다, 네?』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 계시기만 하신지 어머니는 혀가 짧은 말씨로, 이따금씩 코를 훌쩍이기도 하시며 더듬더듬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송수화기를 던지시고는 『벼창호야』하고 나를 돌아보시며 가만히 말씀하셨다.

또 언젠가는 이것은 좀 오래 전의 일이지만 어머니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너 엄마가 니 아버지한테 생떼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라고 나는 얼른 대답했었다. 어머니께 아첨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생떼>에 관한 한 나는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여자인 셈이니까. 내가 다시 말했다. 『서교동 집에 드나들지만 않으신다면…』

어머니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서교동 집에 드나들고 계셨는데, 그런 일을 당사자들끼리 비밀하게 도모하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끝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엄마도 그게 니 아버지나 그쪽 사람한테 폐가 될줄 알았는데, 지금은 엄마가 안 가면 왜 안오나 걱정 한다는 거다』

『입손으로 엄마가 그 궂은 일을 도맡아 해주니까 파출부 기다리듯 기다리는거죠』하고 내가 생쭉하자 『그렇지 않아. 인정이라는게 뭐니? 도장찍고 헤어졌대서 생 남으로 산다면 그게 어디 사람들이니, 기계지』하셨다.

이제는 그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할 차례이다. 공교롭게도 서교동에 다니러 가시는 길이셨고, 자동차 길에서 트럭에 치이신것이다.

M & J INTERNATIONAL
IMPORTER & EXPORTER & DISTRIBUTER, VIDEO GAME & PIN BALL WHOLESALE LEASE RENT

★화면에 인베이터(침략자)가 약동하는 박력과 스릴 만점의 COLOR VIDEO게임 입니다.

취급품목 : SCRAMBLE, DONKY KONG, CRUSH ROLLER, SPACE PANIC, CRAZY CLIMBER, HUNGRY MAN외 New 50ITEMS

"3개월이면 투자액을 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폴로우주계획에 의해 고도로 발달된 전자기술의 산물인 I.C(직접회로)와 DIGITAL(디지탈)기술로 T.V. 화면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의 과학적인 T.V. 오락기구를 개발하고 이곳 캐나다에도 수출을 단행, 신뢰받는 기계,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게나 음식점등 새로운 비지니스로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였기 때문에 정확하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도꾜」를 중심으로 약12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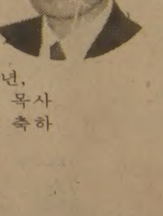
— YU JIN TRADES CORPORATIN —

M & J INTERNATIONAL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ONT. M3K 1Z9
☎ : 630-0313 대 표 : 양 온 백

☎ : DAY : 630-0313
NIGHT : 429-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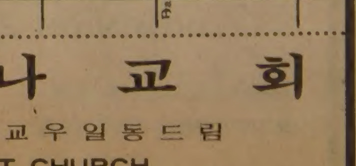
후 원 : YU JIN TRADES CORPORATION (KOREA)
G. G. I (CORPORATION(JAPAN)

박준하 목사 취임예배



서울연회 도봉지방 1대 2대 감리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목회경력 21년, 서울 삼양중앙교회에서 17년간 교회를 맡아 크게 부흥시키신 박준하 목사님을 금번 저희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사오니 오시여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1월8일(주일) 오후5시
장 소 : 서머나감리교회 (416) 223-3121
주 소 : 675 SHEPPARD AVE. WILLOWDALE, ONT. M2K 1B6
연락처 : (416) 752-9860-박준하 목사, 서인구 목사
752-9727-김옥희 전도사, 박준옥 장로
751-5831-엄기옥 장로,
755-7841-고광언 장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머나교회
교우일동드림
SMYRNA KOREAN METHODIST CHURCH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企業公開촉구 決議案채택

財務委서 滿場一致 財務장관이 命할수있게

국회財務委는 28일하오 건설등 公開適格기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株式公開를命하도록 촉구할수있게하는 내용의 對정부결의 안을 채택했다. 이날 財務委는 朴鍾賓의원(民正)이 기업公開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하는 도중에 낸 제의에따라 「本常委는 李承潤재무부장관에게 企業公開促進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當該대상업체를 선정하여 公開를 命할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對政府決議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8일 財務委에서 企業公開촉진결의안을 통과시킨뒤 李承潤재무장관과 談笑를 나누는 民韓黨의원들. ㊧로부터 金在暎 金承穆 孫泰坤 金文元의원, 李재무 李英駿의원.

秋穀값 12%引上이 最終線

국회常委답변 건축容積率규제 地域別差等

국회는 이날 法司 外務 經科 國防등 4개 常委를 제외한 8개 常委를 일제히 열고 정책질의를 벌인한편, 豫決委를 始行, 追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豫決委 는 『올해秋穀收買價는 작년對比 12%인상이 최종선』이라고 밝히고 『10%이상인상은 내년도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의 의견등을 들어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二重穀價制는 농민을 희생시키지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오는86년까지 없앨계획』이라고 밝히고 金利인하나 換率인상등은 장기적인 경제정책상 고려치않고있다』고 말했다. 李圭孝건설부차관은 『水害상습지 1백63개소를 해소하기위해 83년부터 4년간 1천억원을 투입할계획으로 현재 기획원과 건설부간에 조정중에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5차5개년계획기간중 추진할 多目的외에도 오는91년까지 任溪, 任河, 洪川, 명계, 成安등에 5개 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는 2천년까지 다목적댐 건설을위해 26개소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與野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지난 3개월동안 8천8백50억원의 각종증권이 발행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1천3백억원의 國公債를 발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는것 아닌가』고 추궁하고 『전체예산의 4·3%가 매년 年度移越되고 있는데 追更편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建設委 은 金周南건설장관은 『현재 전국어디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있는 건축규제를 기업과 도시의 특성에 따라 差等을두어 適正규모의 건축을 할수있도록 용적률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병원, 학교등 특수건축물과 3층이상 또는3백坪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준공검사이외에 2회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개정, 용도에 관계없이 3층이상과 3백坪이상의 건축물만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외의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폐지토록 하겠다』고말했다. 金장관은 건축허가및 준공검사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위해 현행 공무원이 설계圖書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다만 건축사가 설계하여 현장조사한 復命書와 체크리스트만을 공무원이 검토하여 신속히허가및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또 일정규모(5층이상 또는 3백坪이상)의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은날부터 每2년마다 준공검사를 받은대로 適法하게 유지·관리되고있음을 건축사의 확인圖書를 첨부하여 보고토록하는 의무규정은 건축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보고의무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文公委 는 李光杓문공부장관은『우리나라 [illegible] 編輯權이나 언론기본법 22條에있는 책임편집인제도로 볼때 [illegible] 특별히 자유에 관한것을 삽입하기위한 언론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히고『우리나라 언론은 우리가 처한 여건으로 볼때 다소나마 제약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국방송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언론기관이기때문에 감독을 하고있으며 그 편성관계는 자체내에서 하고있다』고 말하고『방송공사의처우문제는 본사에서도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노력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문공부로서도 이를검토, 가까운 시일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현재 KBS 제2, 제3채널도 전국에서 볼수있도록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지방文藝회관 건립을위해 정부가 中長期계획에 예산을 반영시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農藥연구소 11월發足

4년간 千億투입 水害상습지 해소

商工委 은 徐錫俊상공장관은『借款과 동일한 조건으로 國産機械를 사용할수 있도록 기계공업자금지원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은 2백34억6천만원이며 이것으로는 충분한 보험을 할수 없기때문에 86년까지 1천억원으로 늘리겠다면서『그러나 정부재정상 금년도 정부의 수출보험기금 出捐金은 20억원정도로 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 徐장관은 또『지금까지의 수출은 수량적으로는 20%가, 물량적으로는 12%가 늘어났는데 86년도의 수출목표액 5백30억달러는 기업의경쟁력 [illegible] 힘들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內實化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illegible]

保社委 은 李圭浩보사장관은『低소득원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의 원호보 [illegible]

農水委 [illegible] 장관은『오는11월부터 農藥연구소를 발족 [illegible] 농약의 효능, 독성, 안전 [illegible] 사용등에관한 종합대책을 세워 [illegible]』고 밝혔다.

著作權法전면개정

李文公 國會답변

李光杓문공장관은『현행著作權法이 著作權者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우리실정에 맞는 著作權法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illegible] 博物館法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超過공무원 活用方案확정

清廉度반영 後續人事幅 2천명線

총무처는 28일하오 정부各部處의 人事담당자회의를 소집, 기구개편에 따른 超過人員의 활용등 後續人事를 1개월내로 매듭짓도록 했다.

이날 시달된 초과人員활용계획에 의하면 대상인원이 당초(2백40명)보다 늘어 2백97명이 됐고 국방대학원에 60명을 보내 교육시키며 56명을 올림픽지원위원회등 산하단체에 파견토록했다.

이밖에도 해외훈련 파견으로 47명(장기10, 단기37명)을 소화하고 국내대학에 10명을보내 재교육케하며 각급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으로 30명을보내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97명을입교시켜 정책과정을 마치게 했다.

총무처는 이날회의에서 구조조정에따른 후속인사를 이 세부지침에따라 즉시 인사작업에 착수,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라고 시달했다.

請託등 일체배제

정부는 機構縮小에 따른 11명의 後續人事기본목표를 깨끗한 公職풍토의 정착에 두고 어떻게 청렴도를 반영하면서 능력과 경력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방침이다.

이번 후속인사의 폭은 5課의 폐지되는 課長 인사를포함, 백33개 職位의 3倍인 1천5백~2천명線에 이를것으로보인다.

28일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번의 정부기구축소가 깨끗한 정부, 간소한 정부를지향하는 한과정이라는 점에서 후속인사에 청렴도를 반영하는것은 당연한일』이라고 말하고 『各部處의 중요직위에 근무경력과 청렴도의 반영등 자격기준을 설정케돼있는 국가공무원법에따라 이에 합당하는 직업공무원을 배치하게될것으로안다』고밝혔다.

이관계자는『폐지대상직위의 공무원들이 留任을 위한 운동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안된것』이라고말하고『人事책임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청탁이나 압력은 물론 地緣, 血緣, 學緣등을 철저히 배제할것』이라고 전했다.

각부처는 ▲이번 인사는 초過人員의 활용을 포함, 일관적으로 하고 ▲교육및파견대상자는 장기근무가 대상이되는 유능한 人力을 우선발탁하며 ▲교육이나 파견근무에서 복귀하는 사람은 관련부서에 우선補職한다는 총무처의 後續人事지침에 따라 기구의 세부적인 조정과 함께 인사기초작업을 펴고있다.

◇全斗煥 大統領이 冬季전투태세에관한 보고를 받기위해 周永福국방장관의 안내로 국방부회의실에 들어서고있다.

各軍 冬季훈련태세 全大統領 보고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8일하오 국방부회의실에서 周永福국방장관과 3軍참모총장으로부터 各軍의 冬季전투대비태세에관해 보고받았다.

새마을誠金 기탁 기업인에 親書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새마을誠金을 기탁해온 기업인 4명에게 親書를 보내 치하격려했다. ▲崔元碩東亞그룹회장=2억원 ▲崔淳永新東亞그룹회장=1억원 ▲禹相琦신도리코사장=5천만원▲鄭泰和亞進포장공업사대표=1백만원

波勞組、總罷業 단행

어제 1시간동안 軍투입·強力경고 不拘

【바르샤바27日 UPI=聯合】 폴란드자유노조는 27일 군특수부대의 지방배치와 관영언론의 대대적인 對노조 비난공세등 정부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개선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8일 정오(현지시간)로 예정된 1시간동안의 전국총파업을 예정대로단행하라고 1천만 회원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폴란드공산당은 총파업이 끝나는 28일 하오 중앙위원회를 긴급 소집, 내부의 개혁과 ▲자유노조가 참여하는 거국내각구성등 사회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부족과 당국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혼란을 거듭해온 폴란드의 위기는 사태진전의 중대한전환점을 맞게될것으로보인다.

자유노조는 1천만회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 자유노조창설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28일의 총파업은 누구도 자유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저지할 수 없음을 과시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核心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할것을 촉구했다.

毒가스캡슐 投擲 波서 60여명負傷

【바르샤바27日 로이터=聯合】 폴란드 남서부 실레지아에서 27일 가스캡슐투척사건이발생, 관부 38명과 주민2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관영PAP통신과 자유노조가 보도했다.

자유노조는 酸과 일종의 毒가스가든 4개의 캡슐이 달리는 차에서 던져졌다고 말했으며 PAP통신은 경찰이 터지지 않은 2개의 캡슐을 수거해갔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나중에 병원에입원한 사람이 어린이9명을포함 모두70명에달하며 12명은 중태라고 보도했다.

「國政調査特委」폐기논란 運營委

常委조사반 구성될듯

국회는 28일상오 운영위원회를열고 民韓·국민 議政同友회등이 제출한「低質연탄과 부패공무원에대한 國政調査特別委」구성에 관한 결의안에대해 贊·反토론을 벌였다.

지난22일의 질의·답변에 이어가진 이날토론에서 民正黨측은 特委구성에대한 반대의견을, 民韓·국민·議政同友회측은 찬성의견을 개진했다.

운영위는 29일 상오 회의를 續開,「人權문제調査特委구성」에관한 심의를 거쳐 두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特委案을 폐기하고 대신 商工등 관계常任委에서 조사토록하려는데 반해 民韓黨등은 폐기될 경우 관계장관의 解任案을 제출할 방침으로있다.

이날 民正黨의 沈明輔·吳漢九·鄭東星·金正禮의원등은 반대토론을 통해『特委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할수없다」는 헌법97條但書조항에 위배되며 수사기관에서 신중히 조사중이기 때문에 特委를 구성할 필요가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沈의원은『꼭 국회가 特委를 구성해야 조사를 수행할수있다는 주장에 [illegible] 구실을 가지며 이번사건은 [illegible] 저질연탄의 구조적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개혁의지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따라서 商工委등 관계常委에서 조사를통해 실태를 파악한뒤 다시는低質연탄문제가 再發되지않도록 安全弊的인 장치를강구 [illegible] 실천을촉구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劉溶根 趙重衍 睦 相 徐錫幸 金泰洙 高在淸(이상民韓) 朴在旭(국민) 金正秀의원(議政)등은『헌법97條의 但書조항은 발동요건을 규정한것이 아니라 발동후 행사의범위와 권한을 명시한것이며 소관상임위에서 분담하여 조사하는것보다 본회의 차원에서 特委를구성, 일괄하여 조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저질연탄을 보는 국민의 의아심을풀고 民生과 人權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特委를 구성,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監護수용 5천명

李鐘元법무장관은 28일 국회豫決委답변에서『현재 5천명에 가까운 被감호자들이 대형감호시설에 수용돼있다』고 밝혔다.

韓美 교육諒解각서

李文教·美大使署名

◇한미교육 양해각서에 서명한뒤 악수를 나누는 李奎浩문교부장관과 워커주한美대사.

한미양국은 28일「교육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李奎浩문교장관과 워커주한미대사가 이날하오4시 문교부에서 서명한 양국정부간의 교육에관한 양해각서는 전문및 6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돼있는데 이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협정은 미정부가 외국과 맺은 5번째의 협정이고 한국정부로서는 최초가되는 것으로 양국의 교육교류증진에관한 일반원칙과 협력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油價34弗로 單一化합의 OPEC회의

【제네바27日 UPI=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9일제네바에서 열리는 OPEC특별각료회의에서 유가단일화에 즉각 합의할것이라고 OPEC소식통들이 27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OPEC內최대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를비롯 모든회원국이 참가하는 이번임시각료회의가 단하루만에 유가단일화에 합의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단일화될 유가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地平線

「宇宙보다 癌」이라고한다. 무슨 얘기냐하면 NASA의 아폴로계획으로 달을 정복했지만 우주선에 쓰는 예산의 몇분의1이라도 癌연구에 돌리자는 미국안의 시민운동을 말한다. 이미 미국上院을 통과한 癌정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癌追放시민운동이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예전엔 不治의病으로 알려졌던 結核을 스트렙토마이신등의 힘으로 물리친것처럼 癌과의 싸움이 80년대의 숙제인것이다.

▼한데 한국인의 死亡패턴도 감염성질환에서 惡性종양(癌)으로 어느새 바뀌고 있다한다. 30년대는 15~34세군에서 죽음의 으뜸이 結核, 35~64세군에선 암이던게 이젠 통틀어 암인것으로 서울大醫大 病理學교실의 剖檢결과 알려졌다. 60년대이후 5大死亡원인은 젊은 남자의경우 암, 류머티즘·심장질환, 결핵, 신장질환, 중이염이고젊은 여자는 암, 결핵, 중독, 임신합병증, 신장질환으로나타났다. 또한中·老年期남자는 암, 고혈압, 만성간질환, 결핵, 소화성궤양이며 여자는 암, 고혈압, 류머티즘·심장질환, 결핵, 만성간질환으로 생활수준향상에따른 死因변화가 뚜렷이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네사람중 한사람이 죽기전에 암에 걸린다는 것이고 암으로 죽는율이 여섯사람에 한사람 꼴이라고하니 남의얘기만은 아니다. 미국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이 제일무섭다는 사람이 전국민의62%다. 6년간의 베트남전쟁 사망자의 8배가 1년동안에 암으로 죽고, 이 암사망자는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5.5배, 그리고 2차대전 4년동안의 戰死者보다 많다는 것이다.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더 설명할 필요는없겠다.

▼암추방에는 豫防, 早期診斷, 治療 세가지 부분이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豫防이 된다는 학설이 신문에 발표되고 早期診斷을 받으면 80% 이상 산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 인터페론같은 抗癌劑나放射線治療로 50%이상 치유된다고도한다. 값비싼 인터페론이 국내서도 白血球에서 대량생산하게 된다는 기쁜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유전자공학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인터페론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마저 있다.

▼암에관해서는 새로운 학설이 쏟아져나온다. 요즘은 유전자의 화학적신호에 파손이 생겨 암이되므로 암에안걸리는 체질을 만들수있다는 이론이 새로나왔음은 물론이다. 스트레스로 면역계가 약해지면서 암에 걸리기쉽다는 설도있다. 암에안걸리는 식사메뉴가 화제에오르고 白血病도 결국 암의 變種으로 알려졌으며 小兒癌까지 등장했다. 宇宙여행은 우리네들하고는 까마득한 얘기이지만 암연구만은 생명을 다루는것이기때문에 더 뒤지지않게 폭넓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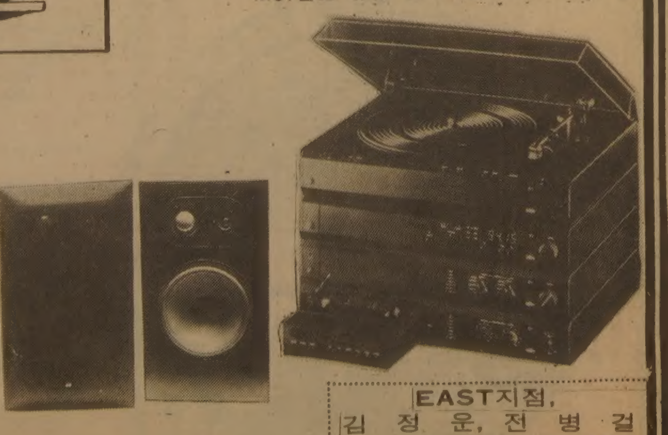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TELEFUNKEN

SPECIAL SALE
특별할인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FEATURES :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RD. HWY 401 HWY 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M1E 3E6
Kingston Rd. Lawrence Ave. E.
282-2820

美, 對사우디 警報機 판매案
오늘 上院서 最終결판
레이건 점차弱勢만회
言論서도 贊反論백중
猶太人로비·오일달러와의 싸움도 곁들여

【워싱턴28日=曺淳植특파원】 워싱턴시간으로 28일하오5시(한국시간29일상오7시)께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5대를 포함한 85억달러 상당의 對사우디아라비아무기판매안에 대한 상원의 표결이 끝난다.

레이건행정부는 AWACS판매에 상·하양원중 한쪽의 승인만 얻으면 족하므로 상원의 가부표결이 바로 사우디판매를 좌우한다.

하원은 2주전 3백1대 1백11표로 AWACS판매를 거부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화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을 겨냥해 손을 쓰고있다.

ABC·TV방송은 27일하오현재 AWACS판매에 반대하는 상원의원이 52명, 찬성47명, 미정1명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2~3일전에 반대 55가 52로 줄었으니 승산이 레이건 대통령쪽으로 기우는 것같다고 ABC·TV는 논평했다.

레이건은 첫째 미국의 국가이익, 둘째 중동평화, 세째 이스라엘이익을 내세워 상원의원들로부터 AWACS판매 지지를 얻어내기위해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말할것도 없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중동평화를 앞세운다.

미국언론들도 상원의원들처럼 찬·반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

28일에는 장장 6~7시간에 걸친 대논쟁이 상원본회의에서 불꽃을 튀길것같다.

미국처럼 의회가 행정부못지않게 외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으며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국가이익」이라는것도 보는사람과 보는 각도에따라 달라진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고 국민들앞에 각자의 견이 설득력있는것으로 보이도록 온갖 힘을 기울인다.

AWACS의 사우디판매가 중동에서 중요한 미국우방이 되어가는 사우디방위를 튼튼히하며 유전을 넘겨보는 소련의 위협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된다고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리비아에 1백20억달러상당의 소련무기가 비축되어있어 유사시에는 소련긴급배치부대가 이무기를 사용할것이라는 설도있듯이 중동에 미국무기가 발붙일수록 미국세가 중동에 진출하는것이 되며 사우디와의 유대와 중동평화가 강화된다고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중동평화를 위협하는것은 소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집트간의 캠프데이비드평화를 반대하는 아랍세력이라고 말한다.

캠프데이비드평화를 반대해온 사우디에 AWACS를 비롯한 85억달러상당의 공격용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안보에 위협을 주며 또 사다트사후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이집트와의 평화협상에서 선뜻 시나이반도를 내놓을수 없게 만든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논쟁에 미국의 베트남전쟁개입실패후 고개든 의회의 외교관여와 고유의 외교권한을 되찾으려는 대통령간의 싸움이 또한 바닥에 깔려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막강한『유태로비』와『오일달러』간의 세력싸움, 그리고 레이건과 베긴간의 싸움도 곁들여있다.

◇양곡창고 調査하는 폴란드軍 폴란드정부가 각지방에 투입한 軍특수분견대의 근무장면. 요세프·라코프스키소령이 인솔하는 분견대원들이 27일 코스롤레티 지방에서 한 양곡상점의 창고를 조사하고있다. 【브로클라브(폴란드) 18日UPI電送=聯合】

유럽核配置공약 다짐
레이건 "反核운동은 少數의견" 일축

【워싱턴27日UPI·로이터=聯合】레이건미행정부는 27일 서구일원에서 고조되고 있는 反核운동이 다수 견해를 반영하는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유럽에 최신 핵무기를 배치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계획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다짐했다.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이날 상오 ABC·TV방송의 굿·모닝·아메리카 프로에 나와 지난주 파리·런던·로마및 브뤼셀등 서구 주요도시에서 있은 일련의 反核데모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다앞서 백악관도 26일 성명을 발표, 이들 反核항의가 소수견해를 반영하는것으로서 핵무기배치를 위한 미국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말했었다.

SS20 완전除去 모색
美, 내달 對蘇군축會談때 거론

【워싱턴28日AP=聯合】미국은 오는30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美·蘇 미사일감축회담에서 유럽배치核미사일의 완전 제거방안을 모색하는데 문호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美국무성이 27일 밝혔다.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東歐에 배치된 소련 SS20은 미사일의 기동성과 긴사정거리를 고려할때 유럽으로부터 SS20미사일을 단순히 철수하는 것으로만은 西歐에대한 위협을 감소시킬수 없을것이며 1983년 하반기부터 美미사일을 西歐에 배치키로한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결정을 취소할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대변인은 소련미사일이『마땅히 제거되거나 해체되거나 파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美·蘇양국이 유럽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해야한다는 루마니아 국가평의회의장 니콜라이·차우세스쿠의 26일자 회견내용을 지지했다.

국민들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의 보장을 믿으려하지않고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면서 레이건행정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질문들에 대해 직접적인 회답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스통신은 또 소련이 유럽에 SS20미사일 2백50基를 배치하고 있다는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의 주장에 대해 유리·코르닐로프의 논평을 싣고 이는 날조된 통계로 유럽을 귀머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核戰不容천명할 用意없나
蘇, 美에 3개항 答辯요구

【모스크바27日UPI=聯合】소련은 27일 미국에 ①핵전쟁은 용납할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할 용의가 있는가 ②핵선제공격전략을 공식폐기할 용의가 있는가 ③제한핵전개념과 증설자산을 폐기할 용의가 있는가등 3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즉각 대답해줄것을 요구했다.

소련관영타스통신은 反核시위를 전개하고있는 西유럽 …

蘇, 지구궤도에 킬러衛星 발사

【워싱턴27日AP=聯合】소련은 美인공위성을 파괴할수있는 새로운 킬러위성한개를 발사, 지구궤도에 진입시켜놓고 있다고 미국의 주간「항공우주誌」가 26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같은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않은채 소련의 킬러위성이『적외선유도 요격장치를 갖춘위성지휘정거장으로서 고도1천㎞에서 거리가 약1만㎞떨어진 美궤도위성까지 기습공격할수있는 무기』라고 설명하면서 이무기가 미국의 항공및 정찰위성에 심각한위협이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유엔事務總長 선출 失敗
中共·美서 거부권行使로

【유엔본부27日AP=聯合】유엔안보리는 27일 쿠르트·발트하임 現유엔사무총장(62)과 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外相(39)등 두명의 총장후보자를 놓고 임기5년의 차기총장후보지명을 위한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나 이에 실패한채 28일상오10시30분(한국시간하오7시30분)再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유엔安保理는 이날 모두 4차례의 투표를 실시했으나 발트하임·살림 두후보자가 중공·미국등 두 상임이사국으로부터 각각 비토(거부권)를 받아 후보지명에 끝내 실패했다.

核開發 凍結 유엔에 촉구
美대학생들

【유엔본부27日AP=聯合】미네소타州를 비롯한 美동북부와 대서양연안및 남부 여러州의 80여 대학에서 모여든 1천여명의 학생들은 27일 3주간의「인류생존을 위한 대행진」이란 시위끝에 전세계적인 핵무기개발동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본부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인류생존을 위한 대행진」이 유엔본부근처의 다그함마숄드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시위와함께 여정을 마무리지은지 이틀후 유엔군축위원회에서 연락책임을 맡고있는 서독인 잉그리드·레만씨에게 제출됐다.

外信안테나

◆佛, 차드에 武器공급開始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의 프랑스정부는 리비아로부터의 합병압력에 저항하고있는 구쿠니·우에데이 차드 대통령을 지원하기위해 지난주 차드에대한 소형무기공급을 개시했다고 프랑스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26일 밝혔다.【파리=AP】

◆아시아人口·開發會議개막 =아시아인구및 개발회의가 18개국 2백여명의 국회의원및 학자들이 참석한가운데 27일 北京市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北京=UPI】

生命工学時代를 산다 <3>
「遺傳子操作」의 技術혁명·産業化의 충격
치솟은 DNA企業株價
上場 하룻만에 3倍로 뛰어
"死活문제" 既存업체들 不安
얽히고설킨 利權戰…회사마다 特許내기熱風

DNA산업이 일반의 관심을 화끌기 시작한 것은 80년12월 美증권시장 OTC(OVER·THE·COUNTER)에 지넨테크社의 주식이 처음 선을 보였을 때부터다.

단10만달러를 모아 기업을 차렸다가 4년만에「시험적」으로 주식시장에 나가본 것이었다.

증권시장에 나가기전 투자은행(인베스트먼트·뱅크)과 상의해야하는 일반관례를 밟을때 지넨테크사는『작은 회사이나 특수분야』라는 이유로 첫 상장기업으로서는 주식단가 상당히 높은 주당28달러로 값을 매겨놓았다.

그날하오 지넨테크주는 무려 89달러로 뛰었다. 상장 첫날 그것도 당일로 3배이상을 뛴 역사는 미주식시장 사상 찾아보기 힘든것이었다.

당장 무언가 대변환이 일어날 것같은 묘한 분위기가 증권시장중심부로부터 솟아났던 것이다.

지넨테크설립초창기에 우연히 상당수의 주식을 사두었던 캘리포니아工大(칼테크)의 한박사과정생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돼 로스앤젤레스·타임즈지가 이얘기를 비즈니스판 톱기사로 쓰기도 했다.

미증권시장엔 뉴욕증권(NYSE)·아메리칸증권(ASE)및 OTC등 3대증권시장이 있는데 주식이 이 3대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증권시장에서 상당기간동안 거래경력을 쌓아야한다.

그러나 지넨테크는 생산품도 없이 DNA이름하나로 단번에 전국시장에 나가 일약 증권사를 뒤집어놓았던 것이다.

증권시장에 나가지 않은 시터스社의 주식이 결정적으로 오른것도 이맘때쯤이었다. 디넥스, 인텔리·지네틱스, CPA, CIC등 새DNA기업이 생긴 것도 그 여파때문이다.

새DNA기업이라고 해서 보따리장사정도로 봐서는 안된다.

DNA세균자에 체제(SYSTEM)라는 뜻의 X를 더해 상호를만든 디넥스(DNAX)는 스탠퍼드대학맞은편의 팔로알토동쪽 편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3월 디넥스는 스탠퍼드대학유전학교수인 찰즈·야노프스키, 폴·버그, 아더·콘버그, 로저·콘버그, 새뮤얼·스트로버, 어빙·L·와이즈먼등 거물급 박사를 모아 6인과학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당 백만달러단위를 넘는 8개의 실험실을 짓기 시작했다.

8개중 2개는 완성 가동중이며 다른6개는 지금 한창 만드는 중이다.

6명의 자문위원중 폴·버그와 아더·콘버그는 노벨상을 받은 명교수들.

사장 알레산드로·자파로니는 자기가 사장직을 맡고 있는 약품투약체제개발회사ALZA의 이익금을 디넥스社로 돌리기로 했다.

ALZA는 다량의 약을 한꺼번에 투약하고 약기운이 떨어질 때쯤 다시 투약해야하는 지금까지의 불편에 착안, 일정량을 일정시간동안 균일하게 투약한다는 아이디어로 새투약체제를 개발하여 기업출발7년만에 대회사로 발전한 신기업.

셀룰로이드캡슐로 일정시간에 일정량의 약이 흘러 나오도록 제작한복용투약기구, 귀밑에 반창고모양으로 붙인후 모세혈관을 통해 일정량의 약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외부투약체제등이 ALZA의 개발품이다.

마침 ALZA는 한국인 康修一박사가 연구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康박사의 소개로 디넥스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결국 책임자는 만나지 못하고 康박사는 설 수밖에 없었다. 康박사는 디넥스사장 자파로니는 실험실이 모두 가동하고 첫열매가 맺을 단계쯤되면 쉽게 인터뷰에 응할 것이라고 위안했다.

미국제약계의 10위안에 들어가는 신텍스(SYNTEX)사는 DNA과학을 주도하고 있는 스탠퍼드대학을 아래로 굽어 볼수있는 팔로알토의 외곽산위에 자리잡고 있다.

사철나무로 건물들이 보일락 말락하게 가려진 아름다운 경내의 어딘가에 DNA연구부가 있다고 안내를 맡은 대변인 던·크리스틴슨은 말했으나 DNA담당과 학자들을 만나거나 실험실을 들여다 보는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텍스사는 지난 10년간 스탠퍼드대학 과학진과 협력관계를 맺어와 DNA과학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며 82년도 연구비 6천8백만달러중 상당액이 DNA연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 안내자는 말했다.

DNA산업이 기존산업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는 이대변인의 얼굴에서도 읽을수 있었다.

한과학보고서는 현재생산기술로는 인터페론 1회투약생산비용이 1백50달러지만 DNA조작법에의한 인터페론의 생산이 현실화되면 비용은 1달러로 줄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혁명은 인터페론뿐 아니고 모든 제조분야를 지배하게 될것이다.

만일 이DNA기술을 잡지 못한다면 기존업체는 망하거나 수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밖에없다.

DNA과학을 둘러싸고 대학과 기업, 기업과 기업사이에 벌어지는 이권경쟁도 벌써 얽힌만큼 얽혀있다.

80년12월 스탠퍼드대학과 UC샌프란시스코가 DNA배합·조작법으로 미연방정부로부터 특허를 따냈다. 현재 특허사용을 계약금1만달러, 연사용료1만달러, 그리고 생산품이 나올경우 이익금 50%에 대한 일정이익의 특허료제공을 조건으로 비독점특허를 팔고 있다.

일본제약회사인 오오사까 녹십자사가 처음으로 DNA특허사용권을 계약했다.

지넨테크는 지넨테크대로 미국과영국 기타외국에 2백여건의 DNA관계특허권을 신청해놓고 있다.

벌써 특허문제에서도 싸움이 붙고 있는 것이다.

대학유전학실험실에 만들어져 있는 DNA모형은 수십대의 원색공이 신비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 DNA산업도 그모형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도 20세기후반의 과학혁명을 위한「마지막 10%년」을 질서있게 풀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聯 (DNA계곡) 28日=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

◇베일속의 신텍스社연구실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인 신텍스사의 연구실전경. 총수입의 9%에 해당하는 6천6백만달러의 연구비중 액수미상이 DNA연구에 투입되고있다. 【朴世勳기자찍음】

메아리
漢江의 다리

대부분의 세계적 도시는 풍요스런 江을 끼고 그 美觀을 자랑하며 발전해왔다. 손쉽게 꼽히는 대로 워싱턴의 포토맥, 뉴욕의 허드슨, 런던의 템즈, 파리의 센江을 들수있겠다. 이 강위엔 예외없이 아름다운 다리가 걸려있다.

유연히 흐르는 강물위에 놓인 다리는 교통편의가 우선하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예술이 또한 피어난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함께 마음이 오가기 때문이다. 강물엔 노래와 사랑이 흐른다. 로렐라이의 고성이 그렇고 워털루다리엔 사랑의 아픔이「哀愁」의 영상을 비춰 줬다.

파리를 떠올릴때 센강을 빼놓을수 없을 것이다. 센江엔 35개의 다리가 놓여있다. 4백년전 처음 건설되기 시작한 이다리들의 총연장은 5㎞. 그 많은 다리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른 떠오르는것은 미라보다리일것 같다. 길이가 1백60m, 폭은 20m인 돌다리엔 失戀의 詩가 지금도 들려온다. 아폴리네르의「미라보다리」는 언제 읽어도 눈시울을 잔잔히 적셔준다.

「미라보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우리의 사랑도 흐른다…」마치 흘러가는 이 물결과도 같이/우리의 사랑도 흘러간다…。어쩌면 이같이 생명은 이처럼 유유한 것인가/희망은 어찌도 이같이 용솟음 치는것인가…」

서울의 남북을 가르며 동서로 흘러가는 한강에 13번째 다리가 엊그제 개통되었다. 최신 디비닥공법으로 세워진 원효대교는 길이가 1천4백70m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중 가장 긴 강의 다리다.

오는 84년까지 3개의 다리가 더 놓여지면 강북과 강남의 交通量는 한결 풀릴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의 교통편의가 는만큼 이젠 한강변의 아름다움에 좀 더 눈을 돌렸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강변엔 차량의 홍수는 있어도 人跡은 드물다. 다리밟기(踏橋)놀이같은 옛서울의 정취를 여기에 되살릴 수는 없을까…。젊은 詩語가 새겨지고 마음이 흘러가는 한강변이 되어야겠다.

서울을 거닐면서 그래도 가장 서울을 느낄수 있는 거리가 古宮의 담을 끼고 걷는 길이다. 한강변과 한강다리는 서울사람들의 숨결이 피어나게 가꿔 나가야 한다. 한강의 다리엔 서울의 아름다움이 흘러가야 하겠다.

海外토픽

◇다이애너 英 황태자비 나들이 심홍색의 챙넓은 모자를 쓴 다이애너 英國황태자비가 27일 웨일즈지방의 얀더드노에도착,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있다. 【얀더드노(英國)27日AP電送=聯合】

협심증投藥機 개발
★동전크기디스크가슴에附着

동전크기의 작은 디스크(납작한원반)를 가슴에 부착시켜 협심증치료약을 심장에 투여하는방법이 개발되었다.

미국선社의 北美의약품연구소 부소장 칼·에이거박사팀이 개발한 이 디스크는 실리콘重合體(플래스틱)속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 유연하고 접착력이 강한 패드에 붙인 것으로서 이를 가슴 또는 上膊안쪽피부에 부착하면 약물이 피부를 통해 조금씩 심장에 흘러들어가 24시간약효가 지속된다.

에이거박사팀은 27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방법을 다른 심장치료약·피임약·항암제및 일부 고혈압치료제의 투여에도 응용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욕27日UPI=聯合】

濠고기 대장균득실
★말고기 이어 또問題化

말고기와 캥거루고기를 쇠고기로 속여 판것이 탄로나 큰 곤욕을 치렀던 호주축산업자들이 최근 또다시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육류를 말레이지아에 수출한 사실이 폭로돼 말썽이 되고있다.

말레이지아 언론기관들은 최근 호주산 육류에 일정량이상의 대장균이 득실거리고있음이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콸라룸푸르=AFP】

멕시코政界 北傀玄峻極 接觸

【서울=聯合】멕시코를 방문중인 北傀黨대표단 玄峻極일행은 체류기간동안 同國혁명당위원장 테드르·오데다및 前대통령 루이스·에체베리아등 政界인물들을 연쇄방문, 쌍방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영향력행사 요청은 물론 反韓활동을 벌인것으로 27일 北傀중앙방송이 보도했다.

北傀의 玄峻極일행은 칸쿤에서 개최된 南北頂上회담과 때를 맞추어 14일 同國을 방문, 멕시코의 政界人物들을 접촉하면서 親善활동및 反韓선전을 자행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NEW REDUCE PRICES
새로운경영, 새로운메뉴, 새로운 맛

한국요리
● 즉석불고기, 멍게
● 선지피해장국, 생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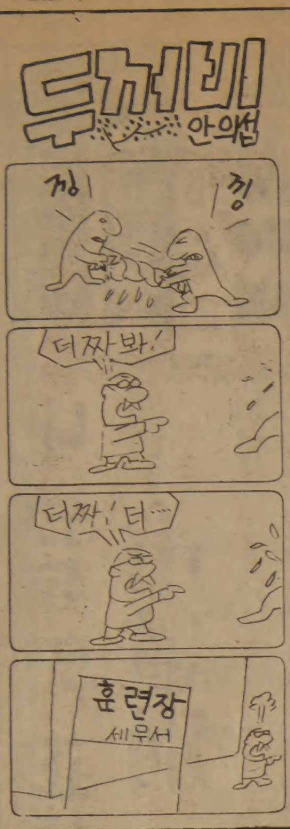
중국요리
● 본고장의 진미, 중국식 부페
● 매일 각종신선한 SEAFOOD써비스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웨이트레스 구함

가수 신현희 양
— 과거 미8군 무대에서 활약
— 오리엔탈 쥬얼스의 리더
— 유럽순회, 미국, 남미 순회공연
— 가수경력13년
— 악기(기타·쌕스폰)연주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선남



잇단 強力사건 市民은 불안하다

母女피살·暗달러商피습등 10일새 10件

「河刑事후유증」 治安空白우려
豫防허술… 한건도 解決못해

끔찍끔찍한 강력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경기 富川에서 모녀가 살해되고 불에 태워지더니 부산에서도 40대여인이 같은 수법으로 변을 당했다。 뿐만이 아니다。 서울奉天洞의 여암달러상 피살사건(26일) 安養거액차치기사건등 최근 10여일동안 서울·부산을비롯한 전국에서는 10여건의 크고작은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흉포화 돼가는것도 걱정거리지만 왜 이싯점에서 이같이 「다발」하는것일까。

포악해지는 犯罪수법에 市民들개탄
"警察 수난 당했어도 믿는것은 警察"

시민들은 혹시 경찰이 河英雄형사의 예금증서 절취사건、상경여대생 피살사건등으로 후유증을 앓아생긴 「공백상태」가 이 「현상」과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고 염려하고있다。

경찰이 연쇄사건들의 범인을 빨리잡아주어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업무도 소홀히 할수없는일이라고 입을모은다。

공교롭게도 살인방화、차치기、암달러상 피살사건등이 모두 河형사가 구속된 지난 18일이후에 발생했다。

시민들은 河형사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상경여대생사건의 張모군이 검찰에서 풀려난뒤의 영향으로 증거없이는 수사를 않겠다는 수사경찰관들의 마음가짐이 결과적으로 공백상태를 가져오게 된것이아닌가 보고있는 것이다。

강력사건은 이밖에도 大邱금복주사장 金泌殖씨집 폭발물사건、인기탤런트 X양 피납폭행사건등이 겹쳐 늦가을 음산한날씨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고있다。

河형사가 구속된 지난18일 이후 28일까지 10일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보면▲부산사채놀이 40대주부 피살사건(27일)▲경기富川市驛谷洞 모녀피살사건(26일)▲安養거액 차치기사건(26일)▲서울奉天洞여암달러상 피살사건(26일)등이었는데 모두 2일사이에 발생했다。

河형사 사건전에도▲상경여대생살해사건▲서울江南區良才洞 택시운전사피살사건(9월26일)▲서울龍山區西界洞 여암달러상 피습사건등도 있었다。

이사건들이 모두 진전없이 미제로 남아있는것도 개운치않다。

특히 富川모녀피살 사건은 피해자가 가정주부와 갓난어린이라는 사실외에 살해한후 불까지 질렀다는 잔인한 수법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중 지난26일 발생한 安養차치기사건과 富川 모녀피살사건은 사전에 막을수있었거나、방범취약지역에서 일어난것이어서 아까운 생명은 물론 거액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모녀 피살사건이 발생한 富川市는 서울과 인접、최근들어 신흥주택가로 각광을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공사장주위를 둘러싼 우범자가 들끓고 있는데도 치안책임은 인접 富平경찰서에서 맡고있으며 관할 驛谷파출소도 사건이 일어난 金씨집에서 1㎞이상이나 떨어져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곳에서 1㎞떨어진 서울九老區 溫水洞에서 신혼주부 피살사건이 발생、수사력을 驛谷쪽에 집중투입했었다。

安養 거액차치기사건의 경우도 사고가 일어난 상업은행 安養지점이 인근상인들만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투기열로 각광을 받고있는 果川의 부동산업자들로 거액을 맡기는 큰규모의 은행이어서 범죄꾼들을 유혹하기에 적당한 곳인데도 경찰이나 은행측의 방범체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시민들은 경찰이 수난을 당했다 해도 『시민들이 믿는것은 역시 경찰이다』는 점을 강조、강력사건에 범인 조기검거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아달라고 당부하고있다。

◇흉기로 살해한뒤 불을 지른 피살사건 현장을 경찰이 조사하고있다。 원내는 숨진金씨。

40代主婦살해放火 釜山
別居하며私債놀이 "아저씨…"반겨 面識犯인듯
이웃처녀발견 "30代남자 나오는것 봤다"

【釜山=聯】 27일 하오9시20분께 부산中區瀛州1洞54 禹相七씨(63)집에서 禹씨의부인 金萬愛씨(45)가 쇠망치로 뒷머리를얻어맞고 숨진채 이불에덮여 불타고있는것을 이웃에사는 金자양(18)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金양에따르면 이날 37세가량의 남자가 金씨방에서 뛰쳐나온뒤 金씨방 창쪽으로가보니 金씨가 연탄불에 인화된 이불에덮여있었고 들어가 확인해보니숨져있었다는것。

범인이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쇠망치가 金씨머리맡에 놓여있었고 불이붙어있는 연탄덩어리가 방안에 던져진채 나뒹굴고있었다。

金씨는 머리의 여러곳을 망치로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반듯이 누워있었고 입은옷은 모두 불에타 3도화상까지 입었다。

金양에 따르면 이날밤9시5분께 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나자 숨진 金씨가 대문을열어주면서 『아저씨왔읍니까』라고 반기는 소리와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20분이 지난뒤 안방문이 열리고 누가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자신도 화장실에 가기위해 나와보니 안방의불이 꺼진채 방안에서 타는냄새가 났다는것이다。

피살된 金씨는 서울龍山區에 사는 禹씨의 둘째부인으로 남편과는 별거、釜山에내려와 점포가 달린 싯가4천여만원짜리 단층한옥에서 두아들과 함께 살면서 현금2천여만원으로 사채놀이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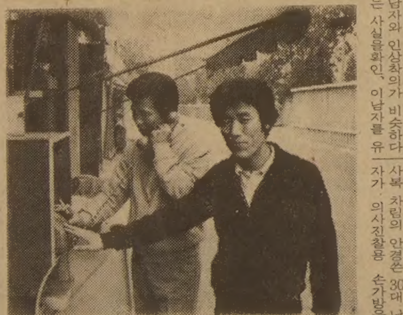
경찰은 현장조사결과 금품이 없어진것이 없음을 확인、치정에 얽힌 원한관계의 사건으로 보고 최근 金씨와 돈거래를 했던 사람들과 金모씨(모전자대리점근무)등 주변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중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금복酒사장집 爆發직전 公衆電話로 30代남자 電話"
구멍가게主人 목격

【大邱=盧基昌기자】 금복주사장金泌殖씨(55)집폭발사고를 수사중인大邱中部경찰서는 28일 金사장집에서 50m떨어진 大邱市中區三德洞2街29의26 세진상회주인 金龍五씨(29)가 지난10일밤 10시20분께 30대남자가 자기집공중전화에서 전화를걸고 나간후 「펑」하는 폭음을 들었다는 진술과 폭발사고가 지난5일 타이머를 사려다녔다는 30대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사실을확인、이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있다。 그러나 타이머를 판곳을찾지못했고 또 다른 목격자가 없어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있다。

세진상회 金씨에의하면 사고당일 밤10시가 조금지나 KBS·TV「세계는지금…」이라는 프로를 보고있을때 1백70㎝가 넘어보이는 키에 건장한 체격을한 고동색 신사복 차림의 안경쓴 30대남자가 의사진찰용 손가방을 든채 공중전화를 걸고나간직후 폭발사고가 났다는것。 경찰은 전화를 건 남자가 든 가방을 폭발물을 넣었던 가방으로 보고있으며 타이머를 사러왔던 남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으나 변장한것으로 추정하고있다。


◇金사장집에서 50여m떨어진 세진상회주인 金龍五씨가 범인으로 보이는 30대남자가 사용했던 공중전화를 가리키고있다。【權周動기자찍음】

비갠후 週末까지 쌀쌀한 날씨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데 이어 기온이 뚝떨어져 주말까지 쌀쌀할것 같다。

28일상오11시께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는 우리나라를 통과하고있는 기압골의 영향때문에 내린것인데 관상대는 28일하오 늦게부터 개기시작한다고 내다봤다。

비가그친뒤 기온은 평균4도정도 떨어져 서울지방의 경우 29일에는 아침기온이 최저5도로 예년과같으나 28일의 9·9도보다 약4도가량 떨어진것으로 이같은날씨가 3~4일간계속될것이라는것。

不實운수업체 支援안해
交通部 우수業體만 增車·금융支援

교통부는 택시·시내버스등의 난폭운전、운전사·안내양불친절、불결한 차량시설등 대도시 교통수단의 서비스부재현상을 개선하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건실하게 운영하는 운수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증차·금융지원등 행정적인 특혜를주어 중점육성하고 운영상태가부실한 영세업체들에게는 모든행정지원을 끊어 스스로문을닫게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교통부관계자·운수업자·조합·전문가등으로 우수업체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우수업체지정에따른 구체적인지침을 마련、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방침이다。

교통부는 우수업체지정자격요건에따라 전국의 1천8백42개택시회사와 3백60개 시내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대상을 심사할 예정인데 우수업체지정을 교통부가 직접 할것인지 각시도의 추천을 통해 할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교통부의 이같은방침은 대도시 교통의 운행질서를 해치고있는 고질적인문제인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발、운전사및 안내양의 불친절、승차거부 합승시비 부당요금징수 불결한 차량등은 1차적으로 기업체들이 운전사 처우개선및 복지시설 서비스교육등을 무시한채 영리에만 급급하는등 기업주들의 경영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있어 기업의 경영체질개선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교통부에 의하면 우수업체로 선정될 자격요건은▲지입제등 변칙운영이없는 완전직영회사▲고정월급제 보너스 퇴직금수당등 운전사 처우성적▲운전사·안내양에 대한 안전교육및 서비스교육 실태▲운전사기숙사등 후생 복지시설상태▲정비시설▲차량청결상태등을 종합채점하여 결정한다는것。

교통부는 우수업체로 지정된 택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증차배정및 수익노선등 인허가 우선권▲세제감면▲각종 금융지원▲보험료 할인▲개인택시면허우선권▲대형차및신형차 배정우선▲부제한철폐▲우수업체를 표시하는 차량표지및 도색등 각종 행정특혜를통해 집중육성키로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영업용3년 자가용6년이상 무사고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주던 개인택시면허를 10년이상등 장기무사고 운전사에게 우선권을주는 면허자격차등제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2~3년전에 내인가를 해주는 사전예고제로 바꿀계획이다。

富川母女피살 被害金品없어
犯人 2人이상 추정

속보=경기富川市驛谷洞수정아파트 모녀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3일이지난 28일 이사건이 2인이상의 면식범에의한 사건이란사실만 추정하고있을뿐 수사의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경찰이 면식범에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점은 피해금품이 없는데다 대낮에 쉽게 金여인 집을 들어갈수있었다는점등을 들고있다。

경찰은 또 숨진 金여인의 손발이 여유있게 묶여있는점등으로 비추어 단독범행이 아니고 석유난로의 연료통마개가 부엌싱크대위에 놓여있던 점으로 미루어 방안의 화재를 방화로 단정하고있다。

경찰은 이같이 수사방향을 정하고 보일러공 金모씨(25)등 김씨집을 자주 출입하던 5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27일 숨진 金여인을 부검한결과 목이졸려 질식한것으로 밝혀내고 또 자혜양도 입과코가 막혀 질식사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金여인의 입술에 묻어있던 길이15㎝가량의 머리카락과 체액을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4형제가 手票위조
「자기앞」 6장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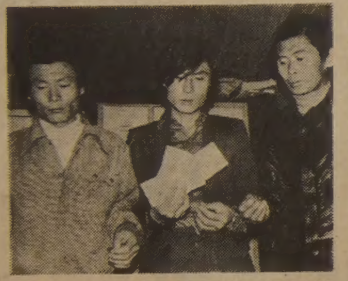
4형제로 구성된 4형제자기앞수표위조단중 3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中部경찰서는 28일 朴成一씨(39·사기전과1범·전남光州市東區柳德洞49의4) 朴鐘洙(27·경기富川市深谷洞132의101) 朴學洙씨(25)등 3형제를 유가증권위조·동행사및 사기등혐의로 구속하고 네째 朴文洙씨(20·경기安養市石水2洞607)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만들어사용하다남은 가짜수표 6장과 제조도구28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달20일부터 3일간 安養에 사는 아버지朴在德씨(63)집 다락방에서 국민은행安養지점발행의진짜 자기앞수표를 나염틀에 붙여 사진제판 현상한뒤 염료를입히고 「水原지점장대리 金仁成」·수표번호등 위조고무인을 찍어 액면가 12만원에서 2백70만원짜리 국민은행水原지점발행 자기앞수표 8종60장을 만들었다는것。

이들은 지난달25일 낮12시께 서울 中區舟橋洞 모공구상에서 6만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20만원짜리 가짜수표를 준뒤 14만원의 거스름돈을받은것을 비롯、맥주홀、금은방등에서 가짜수표 6장(액면3백62만원)을 사용해왔다。

이들이만든 수표는 지질이 진짜보다 두껍고 인쇄가조잡하며 수표의 상하 일련번호가、로롤리는등 조금만주의하면 알아낼수 있었는데 이들은여섯번씩이나시험사용한것이 성공하자 지난 16일 하오2시께 서울 中區乙支路4街119의10 한국안료상사(주인 南浩祐·30)에서 화공약품 1백50만원어치나 구입하면서 2백20만원짜리 가짜를 내밀었다가 주인 南씨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4형제 자기앞수표 위조단중 경찰에 붙잡힌 3형제。

河형사 檢察로
관련자5명은 不拘束 送致

서울시경은 28일 전서울龍山경찰서 수사과 河英雄순경(41)을 직무유기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사건과 관련、문제의 예금증서로 현금을 인출하려했던 徐國錫씨(49)를 장물취득혐의로、徐씨의 아들 灝一씨(26)를 장물알선、趙仁幸(50) 李泰鉉씨(63)를 사인위조및 동행사미수 陸秉龍씨를 위조사인부정행사미수혐의로 각각입건、불구속송치하고 증거물로 위조 도장 1개와 문제의 예금증서도 함께 보냈다。

한편 서울지검은 河형사사건을 尹景花보살피살사건을 다룬 형사3부에 넘기지않고 朴鍾喆형사1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했다。

새마을金庫 이사장 國校장학기금 횡령

【光州=聯】 光州북국민학교 학생들은 28일 자신들이 푼돈을모아 조성한 6백만원의 장학기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光州市東區三成洞 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제칠씨(53)를 붙잡아 돈을 되찾게해줄것을 각계에 호소했다。

어린이회장 김준식군(12)에 의하면 6년전부터 전교생이 중학진학자금 마련을 위해 매일 10~20원씩 저축한 6백만원을 지난9월三成洞 새마을금고에 1년만기로 예탁했는데 지난10월6일 문씨가 이돈을 횡령하고 잠적해 버렸다는것。

이사장 문씨는 이기금을비롯 모두 6천여만원의 예금을 빼낸뒤 가족과함께 도주해버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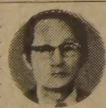
가을 날의 安否
임 덕 원

멀리 있는 정다운 것들을 향하여 便紙를 쓰리라
거기 잘 못드는 것들을 위하여
그리운 말들을 적으리라
그대 오랜 궁리의 끝에
혼자서 돌아간다는
그 쓸쓸한 住所를 찾아
오늘도 헤매었으되
비인 뜰이 더욱 아득하여라
친구여、
四季를 살며 가는 바람의
매운 지평일을 듣는가。
갈물이 쉬임 없이 부풀리며 찾아들며
그대의 마음이 또한 이러한가。
풀벌레 하나 뿔씨 잠들고
우리의 이웃들도 잠들고
이 밤 깨어 있는 불빛이
오래도록 남는다

正音社사장 崔暎海씨

崔暎海정음사사장이 28일 상오5시 서울龍山區동부이촌동 점보아파트707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68세。 崔사장은 1943년 도서출판 정음사를 설립한이래 38년동안 1천여종의 우수도서를 간행、우리문화와 출판계의 선구적역할을 해왔다。 발인은 30일상오10시 자택 장지는 京畿道南楊州郡榛接面長峴里 가족묘지 연락처 ⑳9580~2

2·3代議員 金宅述씨



2·3대국회의원을 지낸 金宅述씨가 28일하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64세。 발인은30일상오 서울江南區盤浦洞반포아파트90동 103호 자택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전북井邑郡七寶面詩山里선영。 연락처는 ⑤845

표주박
할머니現夢꾼 40세孝子 龍門山서 山蔘네뿌리캐

○…앓아누운 홀어머니를 봉양해온 효자가 현몽(現夢)을 꾼뒤 산삼을 캐 화제。 경기도楊平郡玉泉面龍川2里에 사는 趙文鎬씨(40)는 지난달25일상오 10년생 산삼 네뿌리를 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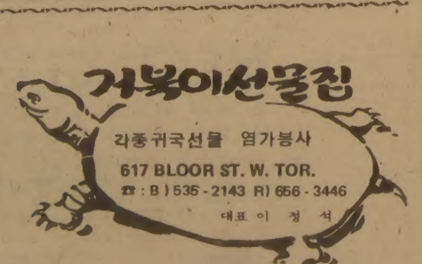
○…趙씨는 전날밤 꿈속에 나타난 돌아가신 할머니의 지시에따라 龍門山능선을 올라가다 커다란 참나무아래 바위틈에서 산삼을 발견했다는것。 趙씨가 캐낸 산삼은 네뿌리 모두 길이30㎝가량인데 慶熙大약학대 陸昌洙교수의 감정결과 진품으로 판정됐다。【서울=聯】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정정합니다

10월28자 8면에 실린 "토론토한인 합창단 제6회 연주회"의 주최는 한인교향악단이 아니고, "토론토한인 합창단 재단이사회"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 영업시간 —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news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thurst Bayview Bloor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우수選手들에 兵役혜택부여

국제대회 3位이내

12종목 百14명해당

정부가 오는88년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수선수들의 지속적인 훈련을위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따라 남자운동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게됐다.

문교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되는 선발위원회를 설치, 대상선수에 대한 심사를 하게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따르면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 유니버시아드등 국제경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선수들이 혜택의 대상이되는데 이들은 심사를거쳐 징집을면제, 보충역에 편입된다.

단체경기의 경우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라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韓國體大의 당해연도졸업생으로 성적이 1백분의 10안에 드는 학생도 특혜를 받게돼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선수는 12개종목에 걸쳐 1백14명으로 파악되고있다.

西獨 國際스포츠·레저博覽會

韓國館전시물 人氣 모아

北歐순회전도 計劃

【퀼른(西獨) 28日=南玎鎬특파원】 바덴바덴 IOC총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전시관의 후속 홍보로 최근 실시한 제7회 퀼른국제스포츠레저박람회의 한국전시관이 10월28일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4백20여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참가했다.

西獨의 퀼른스포츠박물관후원으로 설치된 한국올림픽전시관은 세계각국에서 몰려든 1만5천여 스포츠시설전문가들과 스포츠용품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전시관은 바덴바덴전시때와는 달리 디자인을 변형시켜 장방형으로 꾸며졌으며 우리나라의 스포츠시설, 산업시설, 전통문화등을 유럽인들에게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문공부는 10월31일 이번전시가 끝나면 北歐로 전시관을 옮겨 바덴바덴의 인기를 계속 살릴 계획으로있다.

6개 프로野球팀 곧 創團

내년부터 正規리그 突入

市道別「본거지」配定

1개팀 球場·스카웃·運營費등7億소요

보수는 年俸 6백만원~2천4백만원

實業선수는 출신緣故地別로 按配할듯

국내에 프로야구가 곧 창설되어 빠르면 내년부터 정규시즌경기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국내스포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야구에는 롯데(釜山) 現代(仁川) 三星(大邱) 文化放送(서울) 錦湖(光州) 斗山(大田) 등 6개기업이 참여, 각 기업 연고별로 프랜차이즈(본거지)를 정해 프로팀을 창단, 11월중 프로야구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팀별 예정本據地

서울	〈MBC〉
釜山	〈롯데〉
大邱	〈三星〉
仁川	〈現代〉
光州	〈錦湖〉
大田	〈斗山〉

프로야구 추진작업을 맡은 한국프로야구연맹(가칭)은 그동안 프로야구에 참여시킬 기업들을 면밀히 검토, 프로팀 창단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나선 MBC(대표 李振羲)와 기존 실업팀으로 프로化의 선두주자인 롯데(대표 辛格浩), 그리고 자본금 3백억원, 연간매출액 3천억원이상인 現代(대표 鄭周永)、三星(대표 李秉喆)、錦湖(대표 朴仁天) 斗山(대표 朴容昆) 등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三養社, 해태, 韓國化粧品등도 거론됐으며 프랜차이즈 내정을 둘러싼 해태와 기업내 사정으로 錦湖를 포함한 일부기업의 거취는 아직 유동적이다.

프로야구1개팀 창단에는 구장건설, 선수스카웃, 기타 인건비및 운영비를 포함, 7억원가량이 소요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등 관계당국의 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프로선수에 대한 보수는 연봉 6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사이로 계상되고있다.

신설프로팀선수는 대부분 현역 국내실업팀소속 선수로 충당될 전망이어서 기존실업야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日本式야구나 직장인야구형태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국내야구의 총괄 관장기구였던 기존야구협회역시 기구를조정, 대학, 고교, 사회인등 아마추어팀들의 관할단체로 변모될 전망이다.

프로야구실시시기를 두고 프로추진관계자들간에도 적지않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이 처음 유치하는 제27회 서울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가 내년8월로 예정되어있어서 대한야구협회는 프로야구의 내년8월이후 가동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방경기장시설, 선수확보, 관중동원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은 곧 커미셔너(프로조직 총지휘자)와 사무총장을 선임, 실업선수의 출신연고지별 프로팀 안배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롯데·자이언츠。프로야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日本프로野球 롯데監督에

張勳선수 內定

◇張勳선수

日本프로야구의 한국인 강타자 張勳(41)이 야마우찌(山內一弘)감독의 후임으로 롯데·오리온즈의 감독으로 내정됐다。롯데 구단주 시게미쯔(重光)씨와 구단사장 마쓰이(松井)씨는 27일 롯데본사에서『26일 야마우찌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張勳 선수는 곧 새 감독직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부채꼴 타격으로 유명한 張勳은 日本프로야구에서 23년간 현역선수로 활약, 금년시즌 최초의 3천안타를 돌파, 안타제조기로 불려왔다。

中共서 사격世界新

남자공기총 3백95

【北京27日AP=聯】上海의 川체육학교 학생인 류·중훈군(17)이 26일 杭州市에서 벌어진 中共사격대회 남자공기권총부문에서 3백95점을 수립했다고 관영新華社통신이 27일 보도했다。종전세계기록은 지난79년 東獨의 우베·포테흐가 세운 3백94점이었다。

남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⑲

悲運안은 自由黨태동

創黨때부터 院內外 두머리…風波소지

얼마안가 族靑系세력시위 險難 가중

戰時의 불안하고 암울한 政局속에서 畸形的으로 胎動한 것이 自由黨。

태동할 때 두개의 머리를 갖고나온 自由黨은 시작부터 몰락할때까지 이나라 政治史에 숱한 풍파를일으켰다。

내가 野人으로 지내던 51년여름의 어느날 李承晩 대통령을 만나니 새로운 정당을 만들 생각이라면서 참여를 권유했다。李대통령은 지금까지 政黨不要論을 견지해온터여서 新黨얘기는 놀라운 일이었다。

아뭏든나는 응낙을 하지않았다。불안하기 짝이없는 政局으로 보아 좀더 신중히 생각할 문제였고 내가몸담고 있는 大韓國民黨과의 관계등으로 해서였다。

그런지 얼마안된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李대통령은 新黨의 필요성을 비쳤다。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여러단체가 나서서 新黨發起協議會를 구성했다。

李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하고 있던 國民會, 大韓靑年團, 大韓부인회,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농민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그밖의 각계각층대표가 참여했다。국회의원중에서도 70여명이 가담했다。院內에서 가담한 인물들은 마침 新黨움직임을 보이고있던 共和民政會소속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院內에서 新政同志會와 共和구락부가 연합해만든 共和民政會는 당시 1백여명의 의원을 포용하고 있었으나 同床異夢的 성격이 강해 求心點이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모인 新黨發起協議會는 院內外 同數로 발기준비위원회를갖고 지방조직까지 확대하면서 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策定과정에서 院外대표들이 헌법개정을뜻하는 대통령直選制·兩院制를 주장하자 院內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른바「松島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의견일치를 못보고 대립됐다。

그결과 그해 12월말엔 院外派가 당수에 李承晩, 부당수에 李範奭을 옹립한 自由黨을 結黨했다。이것이 院外自由黨이다。때를 같이해 院內派도 또다른 自由黨을만들었다。李甲成、朴永出、嚴詳燮등이 그 중심인물이었다。이것이 院內自由黨이다。

이처럼 두개의 머리를 갖고 나온 自由黨은 이듬해 3월까지 통합공작을 꾸준히 모색했다。院外自由黨은 이때 실시한 지방의원선거에서 야당인 民國黨을 압도하고 다수의석을 확보했다。이것은 院外에서院內로 도전하는 강력한 교두보였고 정치파동때의「民意」와도 관련된 조직이었다。

院外派의 공세와 포섭공작으로院內自由黨은 정치파동직전에 분열을 일으켜 合同派가 떨어져나와 世稱「三友莊派」라는 세력을형성했다。

결국 自由黨4차全黨大會 개최로 단일 自由黨이 발족을 하고 院內自由黨의 잔류파는 점차 소멸되고 만다。

拔萃改憲案이 통과되고 정치布石을 마친 自由黨은 7월 大田에서열린 全黨大會에서 대통령후보에 李承晩, 부통령후보에 李範奭을 지명했다。당시 鐵驥의 부통령지명을 둘러싸고 自由黨 안에서 반대파가 일어났다。반대파가 鐵驥의 族靑을업고 自由黨의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것이다。

8월5일 실시된 제2대 正·副統領선거에선 李박사가 대통령에당선됐으나 러닝 메이트인 李範奭은 낙선되고 의외로 무소속의 咸台永이 당선됐다。이는 알고 보면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自由黨 內紛의 결과였다。일부에서는 李박사가 拔萃개헌안통과때 鐵驥를 기용, 야당탄압으로 뜻을 이룬 뒤 族靑세력이 커지자 張澤相 국무총리로 하여금 鐵驥를 나선케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 뒤 族靑系는 張총리와 金泰善내무장관이 경찰력을 선거에 개입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그런지 얼마 안돼「古市進사건」으로 張澤相이 총리에서 물러났다。新羅會총수인 張澤相은 만만치않아 집요한 정치공세를 받아 넘겼으나 결국 엉뚱한 사건으로 政略의 제물이 되고말았다。

이렇게되기로 張澤相과 李範奭은불이킬수없는 犬猿之間이되고말았다。

이듬해 大田에서 열린 自由黨전당대회에서 族靑系는 반대파를 거세하고 自派세력을 시위하는 위세를 보였으나 이대회는 族靑系의 최고絕頂期이자 몰락의 시작이되었다。얼마안돼 李範奭도 去勢되었다。

정치파동과 拔萃改憲, 이 정치사의 큰 主役이었던 李範奭과 張澤相은 그들이 능란하게 구사했던 政略과 모략의 덫에서로 걸려들었으니 그들의 비상한 눈으로도 한수 앞을 못보았다고나할까。

난 自由黨에도 참여하지않은이상 이러한 정치싸움에도 超然했다。나는 大韓國民黨을 중심으로 나대로의 길을 걸었다。그것은 정치적인 孤立의 길이었다。그후 나는 몰락한 自由黨을 생각하면 또 李박사가 떠오른다。그분은 몇가지 국내정책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다。사람을 잘못 쓴 것이 그중의 하나다。하지만 초대내각에 참여했던 나로선 그분의 높은 결단력, 韓國을 끌어간 영도력에대한 존경의 念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난날 그렇게 다정하던 鐵驥李範奭(중앙)과 滄浪張澤相(左)은 釜山정치파동, 拔萃改憲, 2代대통령선거를 겪으면서 敵對관계가 되었다。사진은 다정하던때의 鐵驥와 滄浪。右는 安浩相 前문교장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流星의 賦

<220>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⑱

책략의 아침, 7월의 무더운 날이 시작하려는 참이었다。임금이 편전에 나서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임금의 말이 있었다。

『근자 풍문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역모를 하는 낌새가 있다고 하는데 경들은 아는 바가 없는가』

대신들은 모두 잠잠하였다。서로들의 얼굴만 보고있을 뿐이었다。

임금이 다시 말했다。

『전라도 정여립의 동정이 수상하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때 정언신이

『정여립이 어찌 역적이 될 수 있겠아옵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다。

백유양은

『필시 그런 풍설은 이이의 제자가 퍼뜨린 것일 겁니다』

하였고, 이발은 아뢨다。

『그따위 허무맹랑한 풍설을 퍼뜨리는 자를 가만 두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들

『역모 역적은 3대를 주살해야 할 엄한 죄이거늘 분명한 증거 없인 경경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예의 탐사해서 후환이 없도록 하여야겠읍니다』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예의 탐사해서」란 대목은 누가 그런 풍설을 퍼뜨렸는가를 탐사하자는 것이고, 후환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그런 풍설을 퍼뜨리는자를 없애버리라는 의견이었던 것이다。

임금은 그 이상 말하지않고, 그날밤 이영을 불렀다。

『종친의 말을 믿읍니까 하는 소리다만 오늘 대신들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처럼 태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구렁이 아닌가。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순 없거든。10년 이상이나 나의 우익(羽翼)으로 있던 자를 내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들으니 여립의 배신에 분개한 이이의 제자들이 퍼뜨린 풍문일 것이라고도 하니 그럴싸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날 때 까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뢴것 입니다。어린 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잡기 전엔 일체 함구하여야 할것입니다。그러나 신은 이미 확증을 잡고 있으니 계속탐사를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내가 보낸 홍계남은 실로 믿을만한 사람이 옵시다』

『아뭏든 종친께서도 신중히 하시오』

하는 간곡한 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임금의 마음이 기가 민가하는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하기야 그럴만도 한것이다。일개 지방의 선비가 그 벼슬이 겨우 홍문관 수찬(修撰)에 오른 일이 있었던 인 자가 어찌 제정신을 가지고 금성철벽과도 같은 왕권에 도전할 생각을 가졌겠는가 말이다。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영의 단언(斷言)이었다。

이영은 벼슬을 탐하는 자도 아니며 재부를 탐하는자도 아니며, 선조가 등극한 이래 오직 선조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충성으로 일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그가 한 말엔 아직껏 추호의 거짓도 없었던 것이다。

임금과 이영 사이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발설하지 않겠다는 묵계가 성립되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얘, 쿠키야。너 요즘 너무 방어적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할때마다 넌 오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내게 아무말이나 해도 좋아"

"그래, 좋았어! 얘… 아이스크림 좀 가져다 줄래?"

"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가고싶은지 누가 알고싶어해?!"

모눈종이위의生 ⑥

趙善作 金光培畵

<239>

술에 취하셔서 서교동 집에 가족 여행 따위를 제안하신지 며칠 지나서였다。취하셔서 했던 말이니까 잊어버리셨겠지 싶었는데 그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꺼내셨다。

『어찌 아무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다。곧 오월이고 휴일이 겹치는데 좀 좋으니? 내가 가서 유희 엄마랑 의논을 좀 해보겠다』

나는 물론 어머니의 그 터무니없는 발상에 승복할수 없었으므로 어머니께서 서교동에 가시는 일을 한사코 말렸었다。

『설령 그쪽 집에서 간다고 해도 나는 빠질 거예요。가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셨고, 종희 네가 듣기로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유희 엄마랑은 얼마쯤 서로 이야기를 해본 것이라면서 집을 나서셨던것이다。

그런데 그런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교통 사고로 중태라는 비보(悲報)가 날아들어온 것이다。

집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은호의 이름을 입에 올리셨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맡은 사람들이 세호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던 모양이었다。나는 허둥거리며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다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달리는 택시 속에서 나는, 설마 돌아가시지야 않겠지, 그런 말로 안 돼 아직 그러실 수는 없는 거야 하고 수도 없이 뇌까렸다。그러나 이런 내 희망과는 달리 내가 도착하자 마자 어머니께서는 곧 운명하신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거의 미친 여자나 다름이 없었다。운명하시기 직전 나는 가운을 입은 사람만 보면 달려가 매달리며 『우리 엄마는 아직 돌아가시면 안돼요。저 좀 보세요, 선생님。우리 엄말 살려 주세요。엄마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됐어요。살려주세요, 네?』하고 호소했다。그러나 어머니의 시신(屍身)은 멀지않아 영안실로 옮겨졌으며, 그곳에 자그마한 빈소도 마련되었다。그제서야 나는 내 둘레에 서있는 세호, 민희, 은애등이 눈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 애들이 언제 그곳에 왔는지 눈치도 못챘을 정도였다。

마침내 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그러나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속상하고 분해서 견딜수가 없었다。어머니를 여읜 슬픔이야 세호나 민희도 똑같겠지만 그애들이어찌 지난 일년간 어머니와 나의 비밀한 교감(交感)들을 따르랴。나는 그쳤다가 또 울고 그쳤다가 또 울어서 마침내는 목까지 쉬어버렸다。그런 나를 민희가, 때로는 은애가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애들의 위로가 아주 철면피하게 느껴졌을 지경이었다。

세호는 영안실 사람들과의 논해가며 장례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갔다。친척 친지들에게 부음(訃音)을 알리는 일, 장지(葬地)를 물색하는 일, 의식(儀式)의 문제、장의차、조문객들을 접대하는 일까지 세호는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갔다。

밤 늦게부터는 조문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그때쯤 다른 조문객들에 섞여 영안실에 나타났다。아버지께서는 물론 울지 않으셨다。입구에서 안경알을 한번 희번덕 빛내신 아버지는 세호와 나와 민희를 각각 한번씩 둘러보시고 나서 빈소로 가셨고 다른 조문객들과 섞여 어머니의 영전에 재배를 드렸다。그리고 나서 빈소를 둘러나신 아버지는 내 쪽으로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를 피해 달리다시피 영안실을 빠져 나왔다。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ㅁ 생명보험
ㅁ 연금제도
ㅁ 교육보험
ㅁ 그룹보험
ㅁ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 R.R.S.P

김신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922-3111 R)439-8885

당신은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민의 벗 〈한국일보〉는 매일같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에 대한 각종 정보와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HANKOOKILBO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 (416) 533-2361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 바자초대 —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에 여러분 교민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저희교회 여선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바자를 준비했사오니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품　　목 : 편물부, 의류부, 도서부, 식품부, 화초부, 잡화부 기타
메　　뉴 : 만두국, 장국밥, 군만두
복권추첨 : 여러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일　　시 : 1981년11월14일(토) 오전10~오후5시
장　　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친교실 1183 DAVENPORT RD.
전　　화 : 535-6864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

삼복식품

	REG.	SPEC.
● 경기미(쌀)한가마		22.50(Big Sale)
● 갈　　비	1.79	1.09(Frozen)
● 불 고 기	2.69	2.29(파운드)
● 일제라면(30개)		13.95
● 고등어자반	1.25	.99(파운드)
● 보 리 차(한봉지)	1.99	.99
● 한국산 국수(한봉지)	.85	.69
● 김장용 생굴	2.95	1.90(파운드)
● 김장용 고추가루	3.95	3.45(파운드)
● 명 간 장	6.95	6.50(갈　론)
● 일제 전기밥솥(보온용) (산요, 10인용)	159.95	120.00
● 일제 전기밥솥(보온용) (8인용)	69.96	55.50
● 일제카레(한봉지)	1.55	1.25
● 우황청심환(진품) 북경산1통		20.00
● 로얄제리(진품) 1병		9.99
● 고사리 1파운드	1.99	1.19
● 청푸묵 1봉지	1.99	1.59

이외 한국서 갓 수입한 맛좋은 홍합, 한국산 미역, 한국산 오징어, 김등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이면 살아있는 게 싱싱한 가재미, 동태가 있고 그리고 해삼, 전복, 멍게, 소라, 아나구, 꽁치등 없는것을 빼고 다 있으니 한번 들려 주세요.

전 화 : 743－8270
주 소 : 2437 FINCH AVE. W.

삼 복 식 품

미도파백화점 확장기념

밍 크

특별쇼 (할인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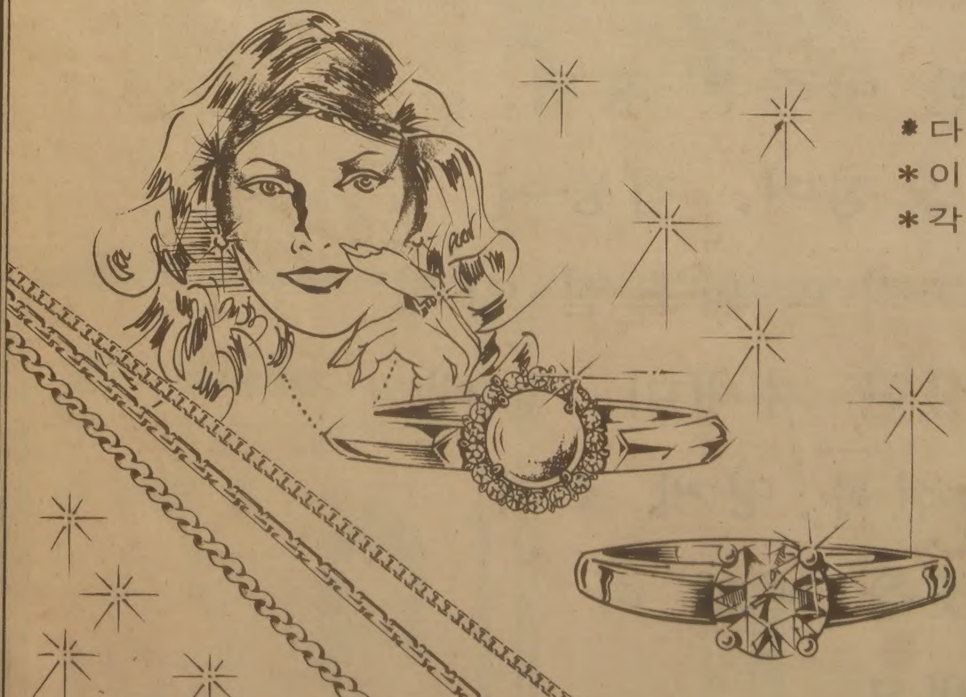
(NOV. 6.7.9. 3 days.)
(金, 土, 月)

안내말씀

교포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저희 미도파선물센타를 확장하여 이번에 **미도파백화점**으로 개칭하고 고객 여러분께 보다나은 봉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써비스 해드릴 준비를 갖추었아오니 부디오셔서 애호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 대표 장 추 신 배

☆ 미도파백화점 확장기념으로 30여년의 경험을 쌓은 W. EINHORN FURD LTD. 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제공하는 100여종 패턴의 밍크및 모피제품을 파격적 가격으로 대매출 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왕림하시기를….



* 다이야몬드
* 이태리제 14K, 18K(금목거리, 오팔, 사파이어, 루비, 진주등)
* 각종고급시계등

보석및 귀금속부 신설

본 미도파에서는 여러분들의 정확하고 확실한 투자 또는 기호를 위해 지난 3년간 귀금속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전공정을 직접 공장에서 연마하였아오니 모든 상담을 바라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1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